

발간등록번호

UPA - 2018 - 027 - 11



2018 울산항만공사 사회책임경영보고서

BETTER TOMORROW VALUABLE SOCIETY



About this Report

보고서 특징

울산항만공사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창출되는 경제, 환경, 사회적 성과를 보고서에 담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격년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2016년에 발간한 '2015 울산항만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이은 네 번째 보고서입니다. 그간 울산항만공사는 보고서 제목에 보고기간에 해당하는 연도를 기입해 왔으나, 금번 발간 보고서부터는 발행시점에 해당하는 연도를 제목에 표시하여 가장 최근에 발간된 보고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명칭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사회책임경영보고서로 변경하여 사회적 가치 추구와 책임 이행에 대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였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보고 국제표준인 GRI Standard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Core Option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의 항목도 반영하였습니다.

보고기간, 범위 및 경계

본 보고서는 울산항만공사의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성과에 대해서는 2018년 상반기의 내용도 포함 하였습니다. 일부 정량적인 성과의 경우 3년 동안의 자료를 공개하여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중대 이슈별로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영향을 식별하여 보고경계(Boundary)를 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변동사항

이전 보고 이후 변동된 사항이 없는 일부 성과와 정보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기술되었으며, 기 발간된 보고서의 보고 기간과 대비하여 보고서의 범위, 경계상의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조직의 규모, 구조, 소유, 공급사슬과 관련된 중대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보고서 검증

보고서 내용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았으며 검증기관이 제시한 보완 및 개선사항을 보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검증의견서는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보고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되었으며,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관한 의견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www.upa.or.kr
주 소	44780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울산항만공사
담당부서	전략기획팀
이 메 일	luna0516@upa.or.kr
전 화	052-228-5343
팩 스	052-228-5349

Contents

About this Report	
CEO Message	02
Sustainability Highlights	04
UPA Value Creation Process	06

UPA Overview	울산항만공사 소개	10
	비전 및 전략체계	12
	주요 경영성과	14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UPA	대국민 참여	18
	사회책임경영 주요 이슈	22

고부가가치 울산항 실현	
미래를 위한 항만 경쟁력 강화	28
고객을 지향하는 서비스	36

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양질의 일자리 창출	44
균등한 기회 제공으로 사회통합 달성	46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울산항 구현	48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발전 기여	56
윤리·청렴한 기업문화 조성	60

투명·공정한 기업문화 확산	
투명한 지배구조	66
위험과 기회관리	68
구성원이 행복한 일터	70

Appendix	사회책임경영 성과	75
	UN SDGs / UNGC 이행 현황	77
	GRI Standards Index	78
	ISO 26000 이행수준 진단보고서	80
	제3자 검증의견서	82
	대외수상 및 인증현황	84

“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책임감 있는
울산항만공사가 되겠습니다.”



CEO Message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울산항과 저희 공사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울산항만공사의 경제·사회·환경 분야 활동과 성과를 담은 네 번째 사회책임경영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난 2007년 7월 출범 이후 울산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울산항은 지난 1963년 개항한 이래 국내 최대의 산업지원 항만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 연간 물동량 약 2억 톤에 이르는 항만으로 성장했으며, 특히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액체물류 1위 항만으로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신항 배후 단지를 조성하고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항만서비스 혁신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선진 항만기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울산항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쟁력 있는 에코 스마트 항만으로서의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항만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녹색항만 조성에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대표 항만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울산항의 발전과, 울산항의 새 시대를 이끌어 갈 울산항만공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울산항만공사 사장 **고상환**

SUSTAINABILITY HIGHLIGHTS

산업수도의 중심 울산항 “개항 이래 최대 물동량 달성”

우리나라 최대의 산업지원항만인 울산항은 2017년 2억 235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여 울산항 개항 이래 최대 물동량을 달성하였습니다. 울산항의 물동량은 1963년 개항 당시 100만 톤에 불과하였으나 개항 54년만에 200배 이상 물동량이 증가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고, 이 가운데 원유 및 석유류, 석유화학제품 등 액체화물은 물동량의 약 82%인 1억 6,665만 톤을 처리하여 전국 1위, 세계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는 화물종류별 물동량 분석을 바탕으로 한 목표 설정과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전략적인 마케팅이 주효했고, 특히 액체화물과 컨테이너, Ro-Ro화물이 전체 물동량을 견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는 물론 동북아에서 독보적인 액체화물 중심 항만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동북아 해양안전 중심항만 구현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대통령 표창 수상”

울산항은 연간 위험화물 처리량이 166백만 톤으로 국내 최대 위험화물 처리 항만입니다. 뿐만 아니라 좁은 수역과 통항혼잡, 다수의 위험물부두가 위치하고 있어 항만 입지조건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이로 인해 울산항만공사는 안전항만이 울산항 경쟁력의 시작점이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울산항 관련 13개 기관 및 업체가 참여하는 ‘울산항 해양안전벨트’ 운영, 국내 항만 최초 PA 주도 ‘울산항 3정 5S 운동’, 재난대응 홈페이지 및 울산항 맞춤형 해양 기상 국지정보 서비스 운영 등이 있으며, 울산항 고유의 안전 서비스 도입과 운영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17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탁월한 안전관리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안전은 울산항의 최우선가치임에 따라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울산항이 동북아 해양안전 중심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만서비스 혁신을 통한 “2017 대한민국 좋은기업 항만운영부문 1위 수상”

울산항만공사는 2017년 울산신항 운영부두 및 북방파제 T/S부두 개장을 통해 액체물류 중심항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부두별 시설물 개선을 통한 체선율 저감 등 부두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염포부두 인근 유희부지를 야적장으로 편입하고, 6부두 야적장 내 보세구역을 설정하는 등 야적장 확대 및 개선을 통해 울산항의 경쟁력을 제고시켰습니다. 이처럼 울산항만공사는 항만서비스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한국경영학회가 주관하는 ‘경영학자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경영대상’에서 항만물류분야 최우수경영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17 대한민국 좋은기업’ 평가에서도 항만운영부문 1위 수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한 차원 더 높은 항만서비스 혁신을 통하여 울산항과 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미래세대를 위한 저탄소 녹색항만 구축”

선박에서 배출되는 가스는 울산항의 전체 탄소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입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을 친환경 녹색항만으로 만들기 위해 “울산항 중장기 그린포트 추진전략”을 재수립하였으며,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선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환경선박지수(ESI, Environment Ship Index)’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내 항만 중 입출항 선박 대상 친환경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항만은 울산항과 부산항 2개로서, 국내 친환경 항만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주요 6개 부두를 대상으로 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 장비 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확대를 위한 태양광발전사업 투자 업무협약 체결, 육상전원공급시설(AMP) 구축을 위한 기반마련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울산항 대기오염물질(PM10 등) 및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며, 저탄소 녹색항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투명경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 “2017년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

울산항만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공직유관단체(V유형) 중 종합 1위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총 573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및 외부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울산항 클린벨트 청렴교육, 자기주도형 청렴학습, 공익 및 부패신고 활성화, 갑질 신고제도 운영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1월에는 부패방지 민간협업 유공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 수상, 12월에는 해양수산부 공직복무관리 우수기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기관의 윤리·청렴경영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앞으로도 반부패·청렴의식을 바탕으로 윤리경영에 앞장서 나가는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공기업으로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항만운영 정보 서비스 제공 “2017년 해양수산부 정보보안 우수기관 장관 표창”

울산항만공사는 날로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항만운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된 랜섬웨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울산항 관계사 대상으로 ‘랜섬웨어 대응반’을 운영하여 피해 Zero화를 달성하였으며, 외부 사이버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고도화된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운영 및 보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 USB차단(PortLock), 문서 암호화(DRM), 망분리 등 다양한 보안정책 운영을 통해 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 주간’을 운영하여 보안취약점 점검 및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위험요인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외부 사이버위협 요인인 DDoS공격, 랜섬웨어 감염 등 다양한 사이버 위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사이버위기 대응훈련과 해킹메일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이버위기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보안 활동 및 노력의 결과로써 2017년도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정보보안 우수기관 장관 표창’을 수상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사회책임경영 우수성 인정 “지속가능성지수(KSI) 해양수산부 부문 3년 연속 1위”

울산항만공사는 사회문제에 책임의식을 갖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하고자 사회공헌 및 나눔 실천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울산항 인근 4개 행정동 주민대표로 구성된 ‘울산항 지역사회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으며, 이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 소외계층 대상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관람 지원, 명절맞이 지역 아동센터 후원금 전달 및 문화소외계층 오페라 관람 지원 등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책임경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17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 측정’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부문에서 3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더불어 美 LACP에서 주관하는 ‘2015/2016 비전 어워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사회책임경영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경영 선도”

울산항만공사는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경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상생경영 사업의 일환으로 장생포 고래문화 특구에서 개최되는 지역관광 콘텐츠인 ‘고래축제’ 개최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재정지원과 더불어 공사 사육을 개방하여 지역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학교를 대상으로 해양항만분야 집중 체험 및 진로탐색의 기회 제공 프로그램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등 해양항만분야의 미래인재 육성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연도별 교육기부 프로그램 수혜인원이 2015년에는 1,202명, 2016년에는 2,069명, 2017년에는 2,46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7년에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한국해양소년단 후원, 한국항만연수원 항만분야 인력양성 교육비 후원, UNIST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지원 등 해양항만분야 인재양성 지원 및 지역사회 공유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UPA Value Creation Process

울산항만공사는 공사를 둘러싼 대외 환경변화를 인식하여 위기와 기회관리를 통한 사회책임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의 핵심활동은 항만개발, 항만건설, 항만시설관리, 항만시설운영, 물류서비스 등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핵심사업활동과 CSR활동을 통해 수익 및 공공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출된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는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전반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를 둘러싼 대외 환경변화



Sustainability Management



Value Creation*



* 2017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UPA Overview

울산항은 지난 1963년 개항한 이래 연간 물동량 약 2억 톤에 이르는 항만으로 성장했으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액체물류 1위 항만으로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항만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 소개

주요 기능 및 역할

-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보수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관리·운영
- 항만시설 공사 및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 항만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생활근린 및 복지사업 등의 건설 및 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 외국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

기업개요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울산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울산항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 물류터미널 및 항만배후단지 조성 및 관리·운영, 울산항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울산항 관련 부대사업의 직접 시행 및 출자 또는 출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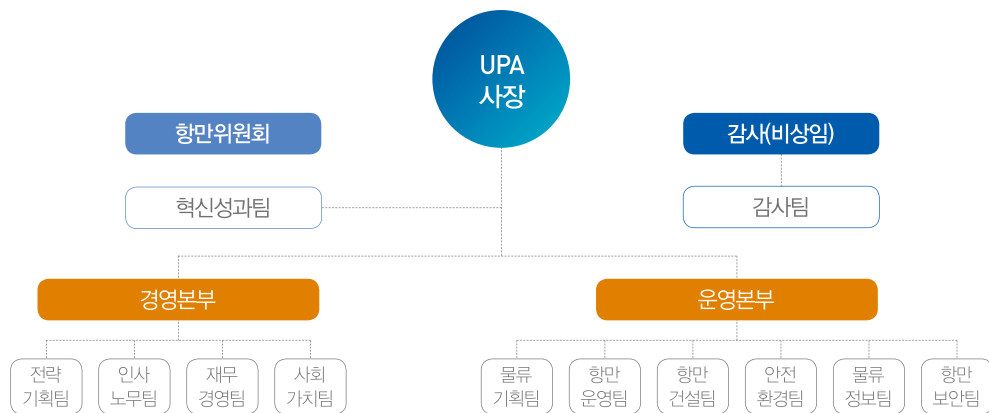
2018년 6월 기준

회사명	울산항만공사	기관유형	공기업II 유형
대표자	고상환	주무기관	해양수산부
설립일자	2007년 7월 5일	매출액	82,812백만 원
설립근거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 (법률 제06918호)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조의2 (대통령령 제19989호)	당기 순이익	30,266백만 원
본사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울산항 마린센터	임직원수	110명

조직구성

울산항만공사의 조직은 2본부 12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본부 산하에는 전략기획팀, 인사노무팀, 재무경영팀, 사회가치팀의 4개의 부서, 운영본부 산하에는 물류기획팀, 항만운영팀, 항만건설팀, 안전환경팀, 물류정보팀, 항만보안팀의 6개 부서가 소속되어 있으며, 사장 직속의 혁신성과팀과 감사 직속의 감사팀이 있습니다.

2018년 6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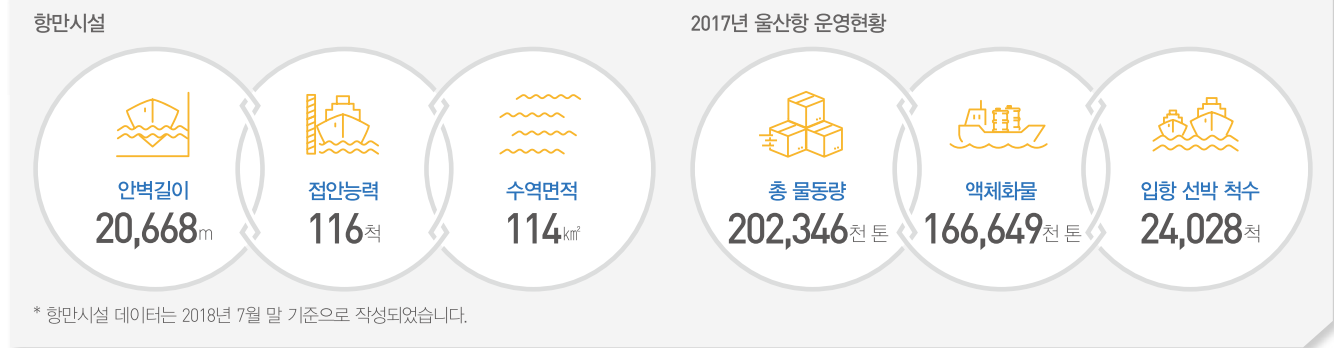


주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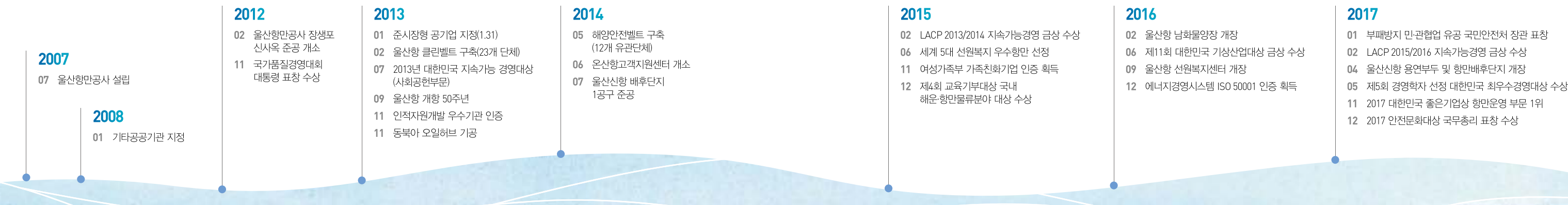
울산항만공사는 울산본항, 온산항, 미포항, 울산신항을 비롯한 울산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 항만관련 부대사업의 직접 시행 및 출자 또는 출연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항의 특성

울산항은 조수간만의 차(약 60cm)가 적고 수심이 깊어 정온이 유지되는 천혜의 항만이며, 배후의 국가산업단지에 입지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는 액체물류 중심 항만입니다.



UPA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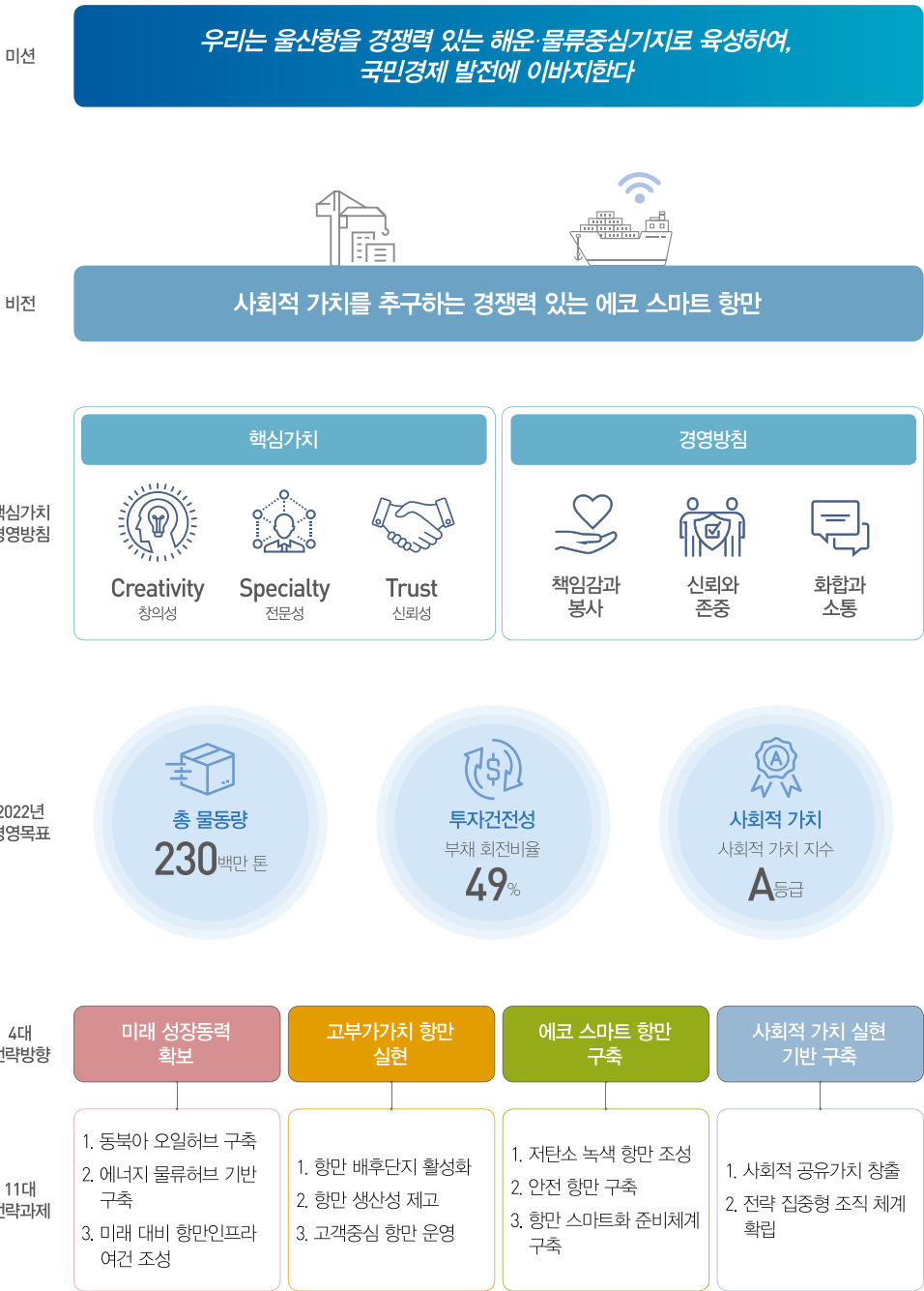


울산항만공사 소개

중장기 경영전략

2017년 11월, 울산항만공사는 해운·항만 및 물류 시장 변화,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형 공기업으로 나아가고자 비전을 재정립하고 2022년까지의 경영 목표를 담은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새롭게 제시된 울산항만공사의 비전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쟁력 있는 에코 스마트 항만'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미래성장동력 확보', '고부가가치 항만 실현', '에코 스마트 항만 구축', '사회적 가치 실현 기반 구축'의 4대 전략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전략 과제들의 성공적 달성과 경영목표 실현을 통해 울산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해운항만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비전 및 경영전략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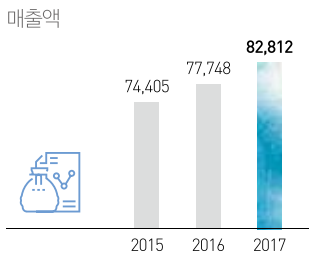
사회책임경영을 위한 성과 관리

전략	전략과제	성과지표	단위	성과		목표	비고
				2016	2017	2018	
미래성장 동력 확보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1단계 하부시설 공정률	%	95.01	100	100	
		오일허브 상부시설 운영	(비계량)	투자의향업체 물색	투자의향업체 발굴	투자자·JVA체결 지분출자	
		지원활동 추진실적 평가	(비계량)	대정부 석대법 개정 추진	석대법 개정	석유제품 통관지원 제도개선	
	에너지 물류허브 기반 구축	LNG 벙커링 도입 추진실적 평가	(비계량)	• LNG 벙커링 TF 구성 운영 • 친환경 벙커링 인센티브 운영	• LNG 벙커링 TF 구성 운영 • 친환경 벙커링 인센티브 운영	• LNG 벙커링 TF 구성 운영 • 친환경 벙커링 인센티브 개선 • 예선 LNG 전환 타당성 검토	
		북극물류거점화 추진실적 평가	(비계량)	산학(영산대)협력체제 유지	북극항로 동향 파악/모니터링	• 북극항로 통과화물 유지 • 인센티브 지원	
	미래대비 항만 인프라 여건 조성	북신항 개발	(비계량)	개발계획 변경 필요성 검토	개발계획 변경 구체화 및 경제성 분석	사업타당성 평가 (국토물류교통효율화법 의거)	
		중장기항만 인프라 여건 조성	(비계량)	중장기 항만개발 운영전략 수립	중장기 항만개발 운영전략 롤링	• 중장기 항만 개발/운영 마스터 플랜 연구 • 중장기 로드맵 수립(1차)	
	고부가 가치 항만 실현	배후단지 임대율	%	10.3	93.5	100	
		배후단지 활성화	(비계량)	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	입주업체 이용 수요 발굴 및 매칭	입주기업운영 협의체 구성운영	
		배후단지공사 공정률	%	23.5	26.7	70.49	
		항만 생산성 제고	톤/시간	540,774	545,951	569	
		총 물동량	천 톤	197,611	202,346	204,609	
		항만시설유지보수만족도	점	83.5	74.8	82.04	
		ICT활용 서비스 확대	건	1	2	3	
		고객만족도	점	90.1	89	93.5(A)	
		고객중심 항만운영	등급	보통	보통	우수	
에코 스마트 항만 구축	저탄소 녹색 항만 조성	환경친화적 항만운영 활동평가	(비계량)	에너지경영시스템 (ISO 50001) 인증	울산항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울산항 기후 이니셔티브 체결	
	안전항만 구축	안전평가대상 시설물 B등급 유지율	%	100	100	100	
		대형재난 발생건수	건	0	0	0	
		보안사고발생 제로화	건	0	0	0	
		외부보안점검 지적	건	15	6	3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점	81.58	88.46	88.46	
	항만 스마트화 준비체계 구축	EA 성숙도 측정	점	3.56	5	5	
		지능정보기술 도입 노력	(비계량)	ISP(정보화전략계획) 예산확보	ISP(정보화전략계획) 추진계획마련	ISP(정보화전략계획) 사업발주	
사회적 가치 실현 기반 구축	사회적 공유가치 창출	사회공헌 수혜자 만족도	점	미시행	98.33	98.33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	76	74	75	
		전략경영지수	점	86	86.9	87.8	
	전략 집중형 조직 체계 확립	1인당 노동 생산성	억 원	5.57	5.77	6.45	
		조직문화만족도	점	78.29	82.18	83.2	
		종합청렴도	점	8.02	8.77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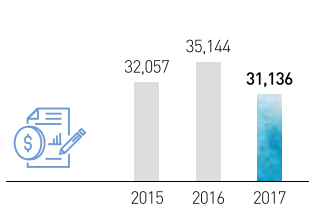
주요경영성과

주요 경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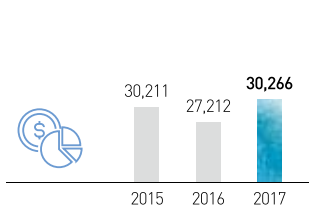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경제 성과

경제적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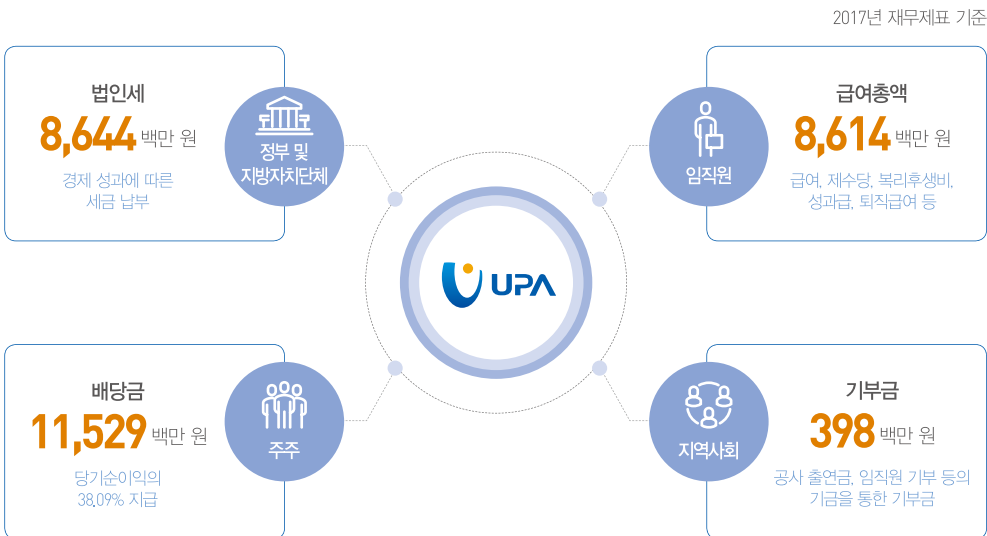
울산항만공사의 매출액은 신항 배후단지 준공으로 인한 신규 수익원 창출, 물동량 창출 노력을 통한 항만시설 사용료 증가 등으로 2017년 82,812백만 원을 기록하였으며 전년대비 6.51% 증가하였습니다. 꾸준히 준비해온 배후단지 사업은 지역산업 특화형 고부가가치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과 마케팅 채널 다양화를 통해 틈새 수요를 발굴하여 2016년 38.6%에 불과했던 입주율이 2017년 93.5%로 개선되었으며, 2018년 3월 기준 입주율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2017년 울산항만공사는 자체 수입을 통한 자원 조달을 통해 무차입 경영을 실현하였으며, 2007년 설립 이후 2018년 현재까지 11년 연속 흑자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유휴자산의 적기 매각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하여 2017년 부채비율 23.5%, 영업이익률 37.6%를 기록하였습니다.

주요 경영지표

	항목	단위	2015	2016	2017
안정성	유동비율	%	206	211	342
	자기자본비율	%	81.87	79.82	80.96
	부채비율	%	22.15	25.28	23.52
	차입금의존도	%	12.78	15.97	15.68
수익성	총자산이익률(ROA)	%	4.06	3.48	3.80
	자기자본이익률(ROE)	%	4.96	4.36	4.69
	매출액영업이익률	%	43.08	45.20	37.60
	매출액순이익률	%	40.60	35.00	36.55
활동성	총수지비율	%	158.52	146.31	149.85
	총자산회전율	%	10.01	9.93	10.38
	매출채권회전율	—	27.72	49.44	38.91
	비유동자산회전율	%	10.90	10.59	11.23
성장성	자기자본회전율	%	12.23	12.44	12.83
	매출액증가율	%	3.81	4.49	6.51
	총자산증가율	%	12.22	5.30	1.89

경제성과 배분

울산항만공사는 경제적 성과를 정부 및 공공기관, 주주, 임직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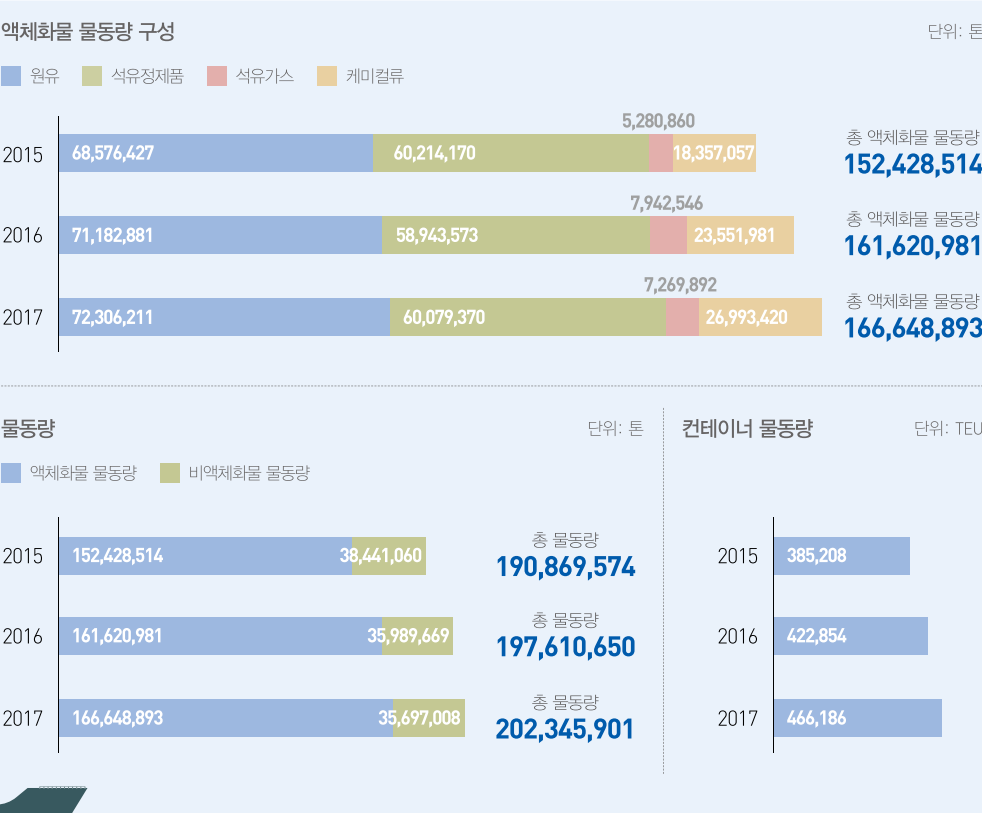
운영 성과

울산항에는 세계적 규모의 정유공장 및 다국적 화학회사들이 집약되어 있어 원유, 석유정제품, 화학공업제품 등의 액체화물 처리에 강점이 있습니다. 울산항은 최대 액체화물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단일항만 기준 로테르담, 싱가포르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의 경영성과와 울산항의 위상을 결정하는 핵심성과지표인 총 물동량은 2017년 약 2억 235만 톤을 기록하며 개항 이래 최고 처리 실적을 보였습니다. 총 물동량은 2015~2017년 기간 동안 연평균 1.97%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배후단지 1·3공구 100% 완전분양에 이어 오일허브 사업이 순차적으로 본 궤도에 돌입하면 울산항은 2022년 성과목표인 총 물동량 2억 3천만 톤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액체화물은 전체 물동량 중 80% 이상을 차지하여 울산항의 성장과 직결됩니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을 통한 수요 창출에 집중하고 있으며, 2017년 액체화물 물동량은 1억 666만 톤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액체화물은 크게 원유, 석유정제품, 석유가스, 케미컬류로 구분됩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유는 2017년 기준 액체화물의 43.4%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원유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의 부두시설 및 저장탱크 증설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원활한 하역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항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유정제품은 원유와 더불어 울산항의 주력화물 중 하나로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로 인하여 물동량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석유가스의 경우 전체 액체화물 중 4.4%(2017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관련 산업의 성장과 설비 증설 등에 따라 2015~2017년 연평균 11.2%의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케미컬류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와 정유사의 비정유부문 강화를 위한 설비 증설 등으로 인하여 꾸준히 물동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2017년 13.7%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컨테이너 물동량 또한 항로 서비스 다변화를 통해 전년대비 10.2% 증가한 466,186TEU를 처리하며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UPA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공기업이 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대표 항만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대국민 참여

이해관계자 정의 및 참여체계

울산항만공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는 임직원 및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조직의 내부 이해관계자를 비롯하여, 정부기관·국회·지자체 등 유관기관, 고객사, 지역사회, 국민 등으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울산항만공사는 공사의 운영에 영향을 주고받는 정도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이해관계자 그룹을 선정하고, 창출된 가치의 흐름에 따라 이해관계자 그룹을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분류별 관심분야에 맞는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소통목표를 설정하는 등 소통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Key Player

내부 구성원



공사의 핵심가치를 창출하는 주체

Context Sett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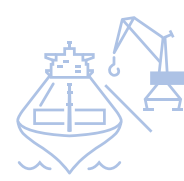
유관기관



정책 및 지원을 통해 공사의 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

Subject

고객



공사 주요사업 활동을 바탕으로 발전적·협력적 조력자

Crowd

국민



공사 정책에 작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그룹

주요 관심사

소통채널

소통목적

공유·확산
주요활동



조합원 권리 확대

지속성장, 자긍심

경영진회의(주간, 월간)
워크숍
노사협의회
주니어보드 등 간담회
직원설명회
설문조사

신뢰 구축

가치 공유 열린소통

- 정기적인 경영회의 개최
- 자유로운 소통채널 구축을 위한 주니어보드 운영
- 중장기 경영전략 롤링 TFT 운영(전부서)
- 비전·전략체계 설명회 개최를 통한 공감대 형성



항만산업
활성화

정책이행,
공공성확대

기관가치,
지속성장

울산항 CIQPS, 울산항 해양안전벨트 등 협약체
PA 사장단 업무협의회, PA 홍보협의회,
PA 감사업무협의회 등 PA 공동 협약체
직접방문
국정감사

주요 현안 공유 및 전방위적 협력

- 울산 시의원 초청 오일허브 사업 설명회 개최
- 국회 의원실 방문으로 우호적 관계 강화
→ 오일허브사업 필수요건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 해양수산가족 인사회 개최
- PA 사장단 업무협의회: PA 인사교류 등 17건 안건 협의
- 항만공사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대국민 참여

이해관계자 인터뷰

울산항만공사의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에 대해 보다 자세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듣고자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인터뷰 대상은 이해관계자 그룹 중 울산항만공사의 운영과 성과에 중요하고 영향도가 큰 이해관계자 그룹 7개를 선정하여, 각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1명씩을 선정하였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청취한 의견은 공사의 사회책임경영활동에 적극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며, 사회책임경영보고서의 중요 이슈 도출에도 활용하였습니다.

중앙정부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서 모범사례 구축을 기대

최근 중시되는 청년실업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울산항만공사의 현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다양한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현명하게 마무리 짓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기업의 고유가치인 경영수의 개선을 통해 공기업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성열산** 서기관

지방정부기관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항만공사가 되어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

항만공사 제도는 기존 정부에서 수행하던 항만관리운영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성있게 추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 운영 시 보다 질 높은 항만서비스 제공으로 항만 활성화에 힘써야 합니다. 적극적인 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채널로 항만이용자의 VOC를 수렴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선박통항 등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각종 인센티브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여 타항으로의 고객 이탈을 방지해야 합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이현수** 계장

고객(화주)

특화된 항만, 남북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울산항만공사

울산항은 더 이상 개발 호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컨테이너부두, 액체화물전용부두의 특성화를 통해 특화된 항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북항과 연계하여 동북아 시베리아 철도의 거점항으로 울산항이 이용될 경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2~3일 이면 갈 수 있으며, 물류비 절감도 가능해집니다.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해상운송과 철도운송을 연계한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항 화주물류협의회 **차기환** 회장

지역사회

물류의 이동공간에서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울산항 조성에 기여

울산항만공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울산항 발전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울산항 발전에 기본이 되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두고 고객중심경영을 하시길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울산항이 물류의 이동공간만이 아닌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을 수 있는 울산항 조성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김순희** 부장

협력회사

항만의 기본은 안전, Value Chain상의 안전 리스크 점검 후 안전 항만 구축에 노력하길

항만의 기본은 안전입니다. 안전한 항만을 건설하여, 물류가 들어오고 나갈 때 막힘이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전하지 못한 항만은 막대한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해양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만이 막혀 물류의 흐름이 정지될 경우 기업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생필품 및 오일이 적시에 조달되지 않으면 유가상승, 물가상승 등을 통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Value Chain 상의 안전 리스크를 확인하고 안전한 항만의 운영 및 관리를 기대합니다.

고려항만 **최현우** 운영대표

고객(선사)

항만산업 안정을 위한 소통의 중재자가 되어 주길

선박의 대형화, 항만산업의 불황과 무한경쟁화, 안전규제의 강화 등 많은 외적 요인으로 인해 항만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과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으로 연결되고 시장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율해 줄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으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이행해 나가는 울산항만공사를 기대합니다.

울산항 선사대리점협의회 **서재철** 회장

노동조합

신성장사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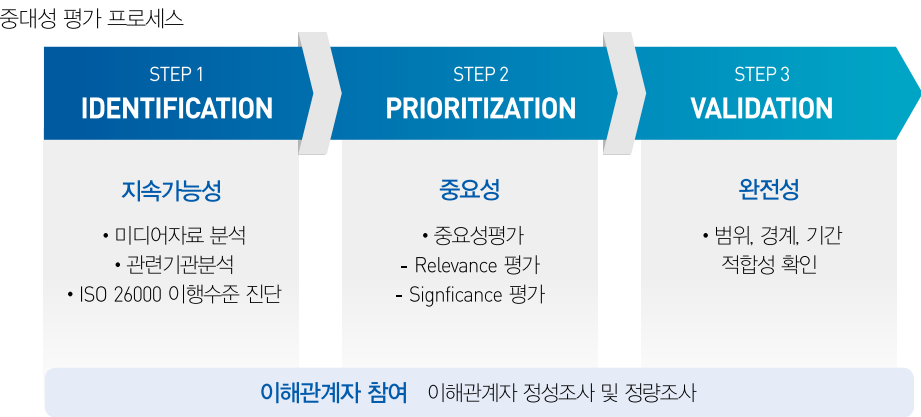
울산항만공사가 이행하고 있는 사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일허브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으며 5~6년 후에는 더 이상 개발 가능한 부두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신성장사업 모색이 시급합니다. 현 사업의 확장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울산항만공사가 위치해 있는 장생포 지역은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장생포 지역 개발에 참여해야 합니다.

울산항만공사 **김성열** 노조위원장

사회책임경영 주요 이슈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울산항만공사는 경제·환경·사회 측면의 폭넓은 사회책임경영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사의 다양한 사회책임경영 활동 중 공사와 이해관계자에게 중요도와 관심도가 큰 이슈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담기 위하여 GRI에서 제시하는 중대성 평가 프레임워크에 따라 중요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STEP 1 Identification _사회책임경영 관련 이슈 파악

울산항만공사는 GRI에서 제시하는 중대성 평가 절차와 IIRC(국제통합보고위원회)의 IR 프레임워크가 제시하는 방법을 참조하여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부 정책방향 분석, 미디어 분석, 관련기업 분석, ISO 26000 이행수준 진단 등을 통해 공사 내·외부의 사회책임경영 이슈를 파악하였습니다.

정부 정책방향 분석	사회적가치 기본법(안), 경영평가 기준, 새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정부혁신안, 해양수산부 정책방향 등을 분석하여 신규 대응 이슈 도출
미디어 분석	울산항만공사의 사회책임경영 관련 이슈에 대한 대외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언론에 노출된 자료 분석
관련기관 분석	국내·외 동종, 유사업종 기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바탕으로 최근 사회책임경영 보고 이슈 파악 및 벤치마크 사례 도출
ISO 26000 이행수준 진단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개발된 ISO 26000 진단 톨에 근거하여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행 수준을 평가하고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우선과제 도출
이해관계자 인터뷰	울산항만공사의 경영에 대한 법적·재무적·운영상 책임 및 영향도의 여부에 따라 핵심 이해관계자 그룹과 각 그룹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 실시

STEP 2 Prioritization _우선순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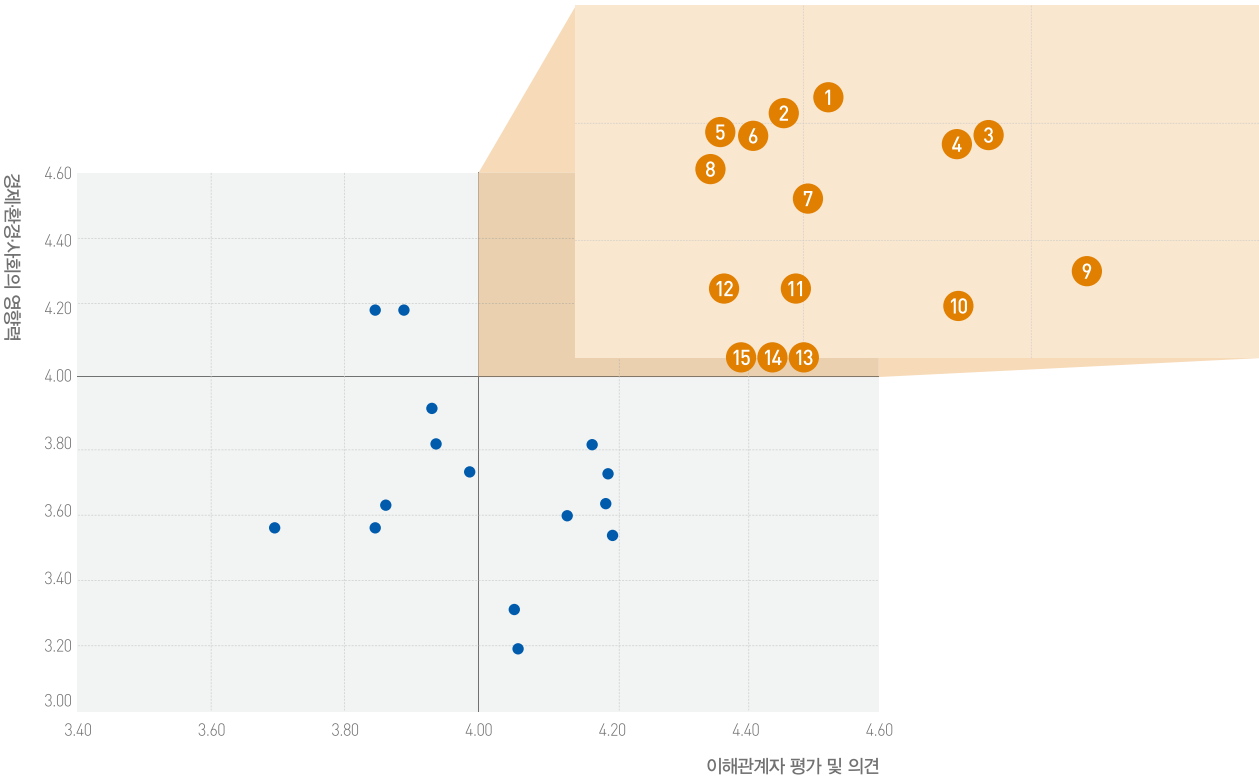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한 관련성 평가 결과에 따라 2018년 6월 21일부터 2018년 6월 28일까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바라보는 울산항만공사의 사회책임경영 이슈에 대해 우선순위화 하여 최종 15개의 중요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STEP 3 Validation _타당성 검증

도출된 중요 이슈는 내부 검토를 거쳐 유효성 검증을 하였으며 보고서 내용을 기획하고 구성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공사는 이슈의 보고 수준을 정하고 공사의 전략과제와 연계하여 본 보고서의 내용을 결정하였습니다.

중요이슈 도출 결과

울산항만공사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환경·사회의 영향력인 Business Impact를 X축, 공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평가 및 의견을 Y축으로 두고 중요 이슈를 도출한 결과, 총 31개의 관련 이슈 중 15개 이슈가 중대 이슈로 도출되었습니다.



중요 이슈 및 보고 경계

순위	중요 이슈	GRI Topic	보고경계	
			내부	외부
1	시장 변화 대응 및 미래성장동력 발굴	-	●	●
2	고객안전(선박 통항 등 안전 저해요인 해소)	GRI 416: Customer Health and Safety	●	●
3	윤리경영체계 구축 및 운영(윤리 및 청렴성)	GRI 205: Anti-corruption	●	●
4	액체화물 안전관리 강화	GRI 403: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	●
5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조, 사회적가치 창출	-		●
6	투명한 의사결정구조 구축 및 운영(거버넌스)	-	●	
7	항만 건설 근로자 안전 확보 및 항만시설 안전 강화	GRI 403: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	●
8	경제성과(액체화물물동량, 입항선박수 증가, 경영평가대응 등)	GRI 201: Economic Performance	●	●
9	임직원의 항만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 강화	GRI 404: Training and Education	●	
10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	●	●
11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	GRI 302: Energy GRI 305: Emissions		●
12	보안체계 강화(울산항 고객 및 국민 개인정보보호)	GRI 418: Customer Privacy		●
13	일자리 창출(신규, 여성, 청년, 지역인재 등)	-		●
14	이해관계자 참여(고객, 지역사회, 국민 소통 강화 등)	-	●	●
15	노사관계 개선	GRI 402: Labor/Management Relations	●	

사회책임경영 주요 이슈

중요이슈 관리 방식(Management Approach)

구분	중요 이슈 분류	지속가능성 관점의 배경과 정책
경제	1. 시장 변화 대응 및 미래성장동력 발굴 8. 경제성과	울산항만공사는 항만시설사용료로부터 얻는 수익의 비중이 높아 울산항의 이용 및 활성화가 공사의 수익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경제 성과와 재무 상태는 추진사업의 투자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기에 중요합니다. 울산항만공사는 2017년 연간 물동량 2억 톤을 달성하는 등의 운영성과를 통해 11년 연속 흑자경영을 실현하였으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동북아 오일허브 조성사업 등과 같은 미래 성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	국제환경규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글로벌 사회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항은 산업의 특성상 선박운항, 선적, 하역 등 항만의 운영과정에서 대기, 해양오염물질을 비롯한 환경 영향물질을 발생시키고 있어 울산항 관리 주체인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의 환경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책임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환경 (안전)	2. 고객안전 4. 액체화물 안전관리 강화 7. 항만 건설 근로자 안전확보 및 항만시설 안전 강화 10.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항만 안전사고 발생과 예방에 대한 이슈는 매년 지속적으로 야기되어 왔으며, 특히 항만중사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 부족으로 항만의 사고는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울산항은 액체화물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국내 최대 위험물 취급항만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전문적인 항만안전관리가 요구됩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역, 해상, 시설, 재난 등 항만과 관련된 모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 윤리경영체계 구축 및 운영	최근 다 기관의 취업 청탁, 납품 비리 등 잇단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져 강도 높은 윤리경영에 대한 요구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울산항만공사는 강화된 법규 준수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지향하여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겠습니다.
사회	5.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조, 사회적가치 창출 13. 일자리 창출	공기업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책기조와 대외 요구가 강해짐에 따라 울산항만공사는 항만을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공공사업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 임직원의 항만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 강화 15. 노사관계 개선	임직원의 역량 강화는 울산항의 신성장 동력 사업을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게 이끌어 나갈 인재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인적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사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할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노사의 소통과 협력을 중요시하여 보다 미래 지향적인 상생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2. 보안체계 강화 (울산항 고객 및 국민 개인정보보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능정보기술(ICBAM) 기반 사이버 공격 위협이 증가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일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랜섬웨어 공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테러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기업은 신뢰도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체계적인 정보보안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 방향	주요 평가 지표 및 2017년 성과		관련 이해관계자	담당부서
• 물동량 유치를 위한 마케팅 강화 • 동북아 오일허브, 배후단지, LNG bunker, 북극물류 등 신사업 추진 목표 달성 • 항만 인프라 경쟁력 강화	 물동량 202,346천 톤	 매출액 82,812백만 원	주주(정부) 임직원	재무경영팀 물류기획팀
• ISO 50001을 바탕으로 에너지 관리 활동 추진 • 항만 미세먼지 측정기 도입 • 태양광과 풍력발전 사업 추진	 ES인센티브 수혜 척수 267척	 항만 내 미세먼지 44.75ug/m³	고객사 지역사회	안전환경팀
• 항만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 안전을 위한 선박통항 여건 개선 • 하역현장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 • 재난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해상항만안전지수 0.071	 육상항만안전지수 0.081	고객사	항만운영팀 항만건설팀 안전환경팀 항만보안팀
• ISO 37001 인증을 추진하여 반부패 경영시스템 정립으로 윤리경영 고도화 • 인권경영 체화 및 내실화	 종합청렴도 2등급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97.8%	정부 국민 임직원	전략기획팀 감사팀
• 배후단지 개발 및 입주기업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 에너지허브의 성공적 구축을 통한 관련 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555명	 '17년 신규고용 인원 81명	지역사회 정부 국민	항만운영팀
• 인적역량강화 기반 구축 및 내실화 • 노사 의사소통 활성화 및 내실화 • 상호 존중과 배려하는 노사협력을 통한 성과 창출	 1인당 교육훈련 시간 101.7시간	 노사협력지수 72.95점	임직원	인사노무팀
• 정보보안 수준제고 및 역량강화 • 정보보안 문화구축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88.46점 (A+등급)	 개인정보 및 사이버 침해사고 0건	정부 국민 임직원 고객사	물류정보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UPA

고부가가치 울산항 실현

미래를 위한 항만 경쟁력 강화

고객을 지향하는 서비스



미래를 위한 항만 경쟁력 강화



동북아 오일허브 조감도

사업 추진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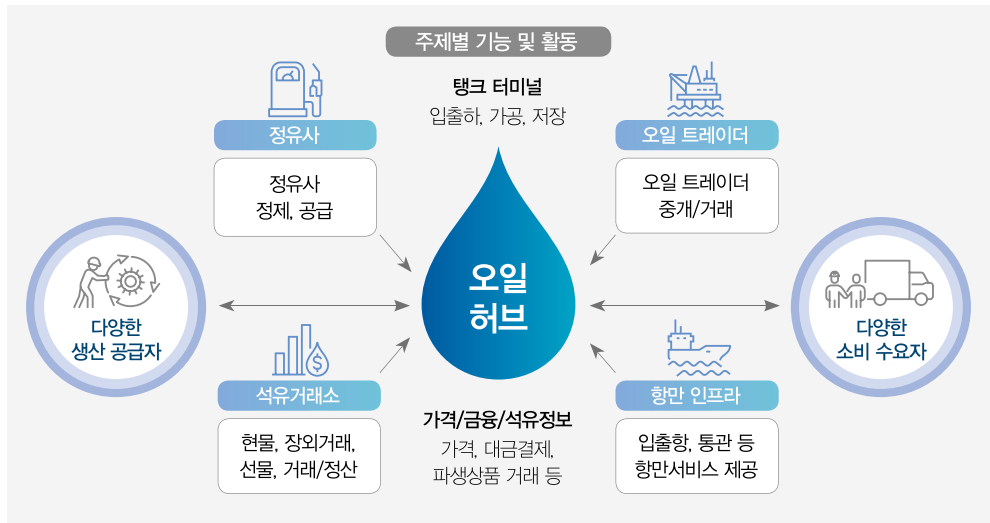
2008.10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 (국토부, 지경부 공동)
2009.08	오일허브 울산지역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KDI)
2010.11	민간투자 적격성 및 타당성 분석(KDI)
2011.12	오일허브 북항지역 기본 설계 용역(지경부)
2012.06	오일허브 개발방향 확정 (국토부, 지경부 합의)
2012.04	오일허브 추진협의회 (UPA, KNOC, 울산시) 구성 → 2014.03 울산세관, 2014.12 울산청 추가
2013.11	하반기 북항지역 하부기반시설 착공
2014.02	울산북항사업 합작법인(KOT, 코리아오일터미널(주))설립
2014.~	오일허브 1단계 상부시설 투자자 모집 (한국석유공사 수행)
2015.04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남항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15.08	오일허브 2단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KDI)
2017.06	• 울산 북신항 하부기반시설 (오일허브 1단계) 완공 • 동북아 오일허브 2단계 (남항)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KDI)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개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울산항의 미래 성장동력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26년까지 약 1조 7,478억 원을 투입해 울산신항에 2,413만 배럴의 저장시설과 돌핀부두 1기를 포함한 1~20만 톤급 접안시설 8개 선석, 2,413만 배럴의 오일 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시설, 68만 5,000㎡의 저장시설 부지 등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개념



구분	전체	1단계(북신항)	2단계(남신항)
사업규모			
접안시설	접안시설 8선석	1~6만 톤 5선석, 12만 톤 1선석	20만 톤 2선석
저장시설(부지)	2,413만 배럴(684천㎡)	813만 배럴(302천㎡)	1,600만 배럴(382천㎡)
총사업비	1조 7,478억 원	6,694억 원	1조 784억 원
사업기간	2010~2026년	2010~2020년	2019~2026년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추진상황

	추진기관	역할	추진상황
1단계 북항	울산항만공사	접안시설, 부두 등 하부기반시설 조성	• 접안시설, 부두 등 하부시설 조성(매립) → 1단계 공사기간: '13.11~'17.6
	한국석유공사	탱크터미널 등 상부시설 구축 및 운영, 사업 투자자 구성	• 상부시설(탱크터미널) 구축을 위한 설계 완료 및 착공 예정 • 상부시설 사업을 위한 투자자 모집 • 상부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합작법인(KOT) 설립 • KNOC, UPA,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SPC(특수목적법인) •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 추진
	대한민국정부	북방파제, 방파호안 등 외곽시설 건설	• 오일허브 1단계 부지 전면 북방파제(2,200m) 건설 완료 • 오일허브 1단계 부지 측면 방파호안(605m) 건설 중
2단계 남항			•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15.9~'17.6) • 경제성(B/C), 정책성 및 수익성(P/I)을 종합 분석한 결과 AHP 0.519로 타당성 기준 충족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1단계 상부시설 완공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울산항만공사가 담당하기로 한 6선석 규모의 접안시설과 부두 등 1단계 하부 기반 조성공사가 2013년 11월 착공하여 2017년 6월에 완공되었습니다. 다만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오던 상부공사(한국석유공사 추진)는 투자자 구성의 어려움으로 착공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신규 투자자 모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통과

2017년 3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석유 제품의 블렌딩이 가능하게 되면서, 울산항도 세계 3대 오일허브(미국 걸프만, 유럽 ARA, 싱가포르)와 같이 석유 제조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오일 트레이더의 법적 지위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간 어려움이 있었던 해외자본 투자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로벌 오일 트레이더 유치 및 양성 노력

중장기 액체물류 허브로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물(Physical) 오일 트레이더의 울산항 신규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울산항만공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신규 오일 트레이더 유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오일 트레이더가 과거 5년간 울산항에 입항 하역된 적이 없는 신규 액체화물을 유치하면 3년 동안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오일 트레이더 맞춤형 인센티브도 도입했습니다.

아울러 울산항만공사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수행하는 에너지 트레이더 양성 사업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일부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강의를 수강케 하는 등 오일 트레이딩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벙커링 활성화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에 주로 입항하는 탱커선의 경우 타 선종과 달리 안전상의 이유로 화물 하역 작업과 급유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급유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부두 또는 정박지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울산항만공사는 벙커유를 촉매화물로 유치하고, 외항 탱커선이 급유를 위해 부두나 정박지를 추가 사용할 시 12시간까지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벙커링 활성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벙커링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인센티브가 도입(2016년 1월)된 첫해인 2016년 선박 급유량 전체 실적은 전년 대비 2.3% 증가했으며, 급유 탱커선도 95.4% 증가했습니다.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선박 급유량이 1.2% 증가하였으며, 급유 탱커선은 23.5%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선박 급유 증가에 따라 울산항은 약 352억 6800만 원*의 항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벙커링 인센티브제도 도입 시 경제성 분석 기준

홍보 강화

울산항만공사는 오일허브 관련 국제 교류에 참석하고 관련 영문 웹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등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자 영입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상업용 탱크터미널과의 협업 마케팅을 진행하였으며, 울산항의 액체화물 취급 인프라 및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등과 탱크터미널의 저장시설 현황 등을 연계하여 세계 주요 액체화물 화주, 탱크터미널 관계자들이 구독하는 탱크 스토리지 매거진에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이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월간 오일허브'를 발간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항만 경쟁력 강화

항만배후단지 조성 및 운영

항만배후단지 조성 사업 개요

울산항만공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항만배후단지를 확보함으로써 단순 하역 보관 기능에 치우친 울산항을 항만과 배후단지가 연계된 고부가가치 창출형 항만으로 전환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되는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는 2030년까지 1,512,816㎡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울산신항 북항 배후단지(1,2단계)는 울산항만공사 자체재원으로 조성되는 일반 배후단지로서 자유로운 무역활동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정부재정이 투입되어 조성되는 자유무역 지역형 배후단지와는 운영 및 조성개념이 다릅니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영남권의 수출입 활동 및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지원하고, 울산항 주변 산업단지의 물류서비스 지원기능 제고와 더불어 향후 환동해 및 북방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해륙 연계물류 체계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항만배후단지 조성 현황*

구분	합계	1단계		2단계
		1공구	2공구	3공구
면적	681천㎡	242천㎡	183천㎡	256천㎡
사업기간	’10.5~’20.2	’10.5~’14.7	’13.11~’20.2	’12.11~’17.4
조성용도	복합물류 제조 오일허브지원	복합물류 제조	오일허브지원	복합물류 제조
사업비	1,272억 원	451억 원	421억 원	400억 원
시행주체, 재원조달	울산항만공사			

울산신항 배후단지 조성 계획



맞춤형 지원을 통한 울산신항 배후단지 입주율 100% 달성

정부의 '배후단지 관리지침'이 울산에 특화된 제조기업 유치에 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울산신항에 조성된 배후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제조기업에 대한 자격을 완화하고, 지역산업 특화 업종에 대한 전략적 유치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시와의 협업을 통한 타 지역 잠재기업 발굴 및 입주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실행하여 2016년도에 10.3%에 그쳤던 1·3공구 배후단지 입주율이 2018년 3월 100%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컨테이너 24만 TEU와 일반화물 62만 톤의 물동량 창출은 물론, 4,260억 원의 신규투자를 이끌어 내어 521명의 양질의 일자리와 공장 건설에 따른 1만8천 명의 건설 일자리 창출도 기대됩니다.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지원제도

① 배후단지 관리지침 : 항만특성 반영 공정하고 평등한 제도 개선

구분	세부내용	
	장애요인	개선
제조업 배후단지 입주장벽 해소	제조업은 중간 원자재 수입액 비중이 높음에도 입주 자격 실적에서 제외되어 입주시 불리	입주자격 실적에 수입액 비중 추가
업종 간 불평등한 가산점 개선	배후단지 입주에 불리한 제조업 유치 촉진을 위한 가산점 개선 필요	울산지역 특화 5개 부문(석유, 자동차 등) 제조업에 대한 가점 신설

②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비즈니스모델 맞춤형 컨설팅 및 행정지원 제공

구분	입주기업애로	주요지원내용
S社 (제조업)	정부 지침 상 1개 업체별 최대 임대 가능면적(15만㎡)초과	• 화물 고용 부가가치 규모, 지역 내 대규모 투자, 사회적 가치 등 파급 효과
	대규모 공업용수 인입 필요	• 울산광역시, 수자원공사 협업 공업용수 신규 인입 지원 합의
J社 (제조업)	바이오 디젤 원료(팜유 등) 수입을 위한 액체화물 부두 필요	• 용연부두 기능 조정을 통한 액체화물 취급 지원 검토 • (장기)부두 기능 조정(단기)용연부두 액체화물 하역 지원
P社 (제조업)	생산 공정상 안정적 스팀(Steam) 조달	• 한국산업단지공단 협업 울산 스팀하이웨이(Steam Highway) 연계 폐열 공급 가능업체와 비즈니스 매칭 제공
U社, D社 (물류업)	對 러시아 물동량 증대에 따른 정기 컨테이너 항로 필요	• 컨테이너 국적선사 3개사 및 중국계 민영선사 1개사, 대상 러시아 정기항로 개설 매칭 및 신규항로 인센티브 제공

1·3 공구 임대현황



미래를 위한 항만 경쟁력 강화

신사업 추진 1: LNG 벙커링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 논의

국제해사기구(IMO)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선박에 의해 발생하는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 세계 모든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기준으로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₂) 등 배기가스와 선박평형수 등 해양오염물질 배출을 감소하도록 강제하는 환경규제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규제에 대응하여 선박 배기가스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LNG가 기존 연료유의 대체 연료로서의 가능성이 부각됨에 따라 LNG 벙커링에 대한 전 세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IMO가 2020년부터 선박유 사용 규정을 시행하면 신조 선박 중심으로 LNG 벙커링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 세계 주요 항만들은 LNG 벙커링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과 안전성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도 해당 규제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LNG 연료 벙커링 인프라 조성을 울산항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울산항에 LNG 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과 함께 선사 및 LNG 생산 공급사 등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울산항만공사는 한국가스공사 및 울산광역시, 현대중공업 등과 민·관이 함께하는 ‘울산항 LNG 벙커링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해왔으며, 그 결과 단기적인 방안으로 탱크로리를 통해 선박에 LNG를 공급하는 TTS(Truck To Ship)방식을, 중기적으로는 LNG 공급선을 통해 공급하는 STS(Ship To Ship)방식을,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LNG 벙커링 기지 구축방식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단계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벙커링 인센티브 제도 확대

울산항만공사는 LNG 벙커링 인프라를 조성함과 동시에 국정과제 58호인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운영해오던 울산항에 입항한 외항 탱커선에 대해 하역 전후 급유 시 최대 12시간까지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해주는 ‘울산항 벙커링 활성화 인센티브 제도’를 2018년에는 보다 확대시행하여 ‘친환경 벙커링 확대형’을 도입하는 등 보다 고차원적인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통해 IMO의 선박배출 연료규제 강화에 대비하고 현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LNG 벙커링을 넘어 LNG 클러스터로

울산항만공사에서는 LNG 연료 활성화에 대비하기 위해 울산항 내 LNG 취급 인프라 도입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는 ‘울산항 LNG 복합 클러스터’조성을 목표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TTS(Truck To Ship)→PTS(Pipe To Ship)→STS(Ship To Ship)→FLBT(Floating LNG Bunkering Terminal) 도입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서 세계 9개 항만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 LNG 벙커링 협의체에 참가하여 주도적으로 LNG 벙커링 관련 국제 규정 및 기준 정립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정부(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울산광역시)와 협업하여 울산항 내 서비스 선박(예선 등)의 LNG 수요를 발굴하는 등 자체 수요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장기적으로 오일허브사업과 연계한 LNG 저장시설을 울산신항에 유치,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2026년까지 울산항을 ‘에너지 허브’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을 완성하여 친환경 항만으로서의 경쟁력도 함께 제고할 예정입니다.

신사업 추진 2: 북극해항로 개발과 물류 거점화

북극해항로 개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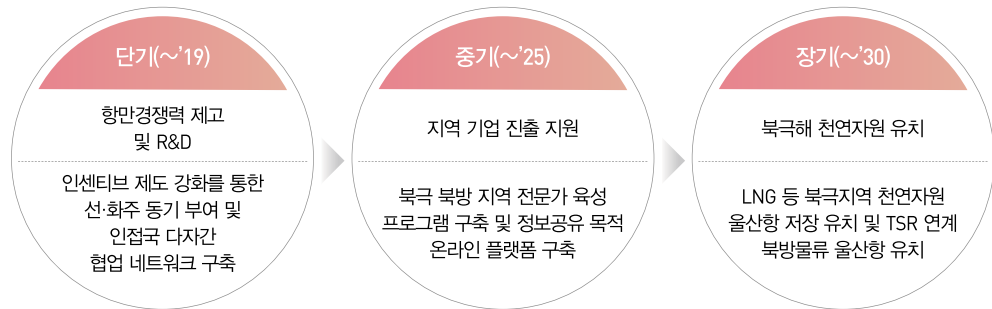
북극해항로는 동아시아와 북대서양 연안지역을 잇는 최단거리 항로로서 러시아의 축치 해, 동시베리아 해, 랍테프 해, 카라 해, 바렌츠 해를 지나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신규 해상 운송 루트입니다.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에 이어 제3의 항로로 불리는 북극해항로는 기존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우리나라와 유럽 간 운송거리를 7,000km 가량 단축하여 수에즈 운하에 비해 거리는 40%, 항해일수는 약 10일을 단축시킬 수 있는 항로입니다.

이처럼 항해거리가 단축됨에 따라 연료 절감, 운임과 운송에 대한 원가 절감 등의 이유로 경쟁력이 높은 항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북극해 연안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및 가스를 비롯한 풍부한 광물자원의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더욱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방물류-북극해항로 사업 추진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북극해항로 활성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북극해항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015년 ‘북극해 및 극동러시아 물류연계 울산항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였으며, 학계·연구기관 자문, 워크숍 및 내·외부 의견 취합을 통해 수립된 중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방물류-북극해항로 사업 중장기 계획



북극해항로 활성화를 위한 전문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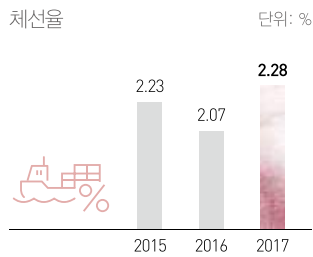
울산항만공사는 북극해항로 사업 중장기 계획에 따라 영산대학교 북극물류연구소와 MOU를 체결, 산학협력을 통한 산업계의 성장과 대학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과 2016년에는 해양수산부·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북극해항로 국제세미나’를 2년 연속으로 개최하여 북극해항로 활성화 방안 및 유망화물 관련 정보를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북극해항로 활성화 인센티브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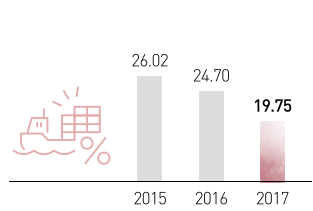
울산항만공사는 북극해항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2014년부터 북극항로를 이용하여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북극해항로 이용 수입화주에 대한 볼륨 인센티브 제도’는 북극해항로를 통해 울산항으로 화물을 수입한 국내 화주에게 당해 연도 물동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볼륨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는 해당 제도를 통해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항만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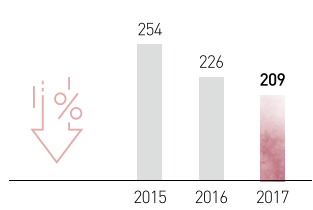
체선관리 성과



체선집중부두 체선율



체선 경제적 손실액



항만 경쟁력 강화

항만운영 효율화를 통한 체선을 관리

체선이란 접안시설 부족 등으로 대기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대기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이러한 체선은 화주 물류 비용 증가와 울산항 생산성 저하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항만운영 비효율 및 항만시설 부족 등에 기인합니다. 울산항만공사는 부두 운영개선 및 항만시설 확충, 항만이용자 협업 등을 통해 항만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효율적인 입항 및 선적이 이루어지도록 체선율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선집중부두에 대해서는 매월 모니터링, 부두운영사 단일화, 하역장비 도입, 하역시설 유지보수, 선석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선을 저감을 위해 필수적인 고효율 하역장비에 대한 하역사의 투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체선에 따른 이용자의 물류비 부담액을 저감하였으며 이용자 서비스품질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울산항 항만운영 효율화 추진 실적

항만운영 개선

- 부두별 취급화물 제한완화
- 온산 4부두 시멘트→다목적 부두
- 연계운영으로 동시 접안 환경 조성
- 부두이용 장애시 대체부두 운영

항만시설 개선

- 선박운항여건 개선을 위한 정박지 및 항로준설 실시
- 울산항 집단정박지 확장(15)
- 신항 및 오일허브 개발, 하역시설 확충 등

항만이용자 협업

- 협업을 통한 계획적인 부두 운영
- 선석 회전을 최적화를 위한 선석 운영회의 자율 운영
- 선석 운영지원시스템 고도화
- 선박 스케줄 최적화 관리 지원

부두생산성 제고

선박 대형화, 항만 수요 다변화, 항만기능 재정립 요구 등 항만물류 환경과 항만운영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권역별 특성화 운영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최적의 부두기능 조정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울산항 개선방향

구분	본항	온산항	북신항(현재)	남신항(미래)
특성화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광석	배후단지, 컨테이너, 오일허브(1), 에너지	오일허브(2), 목재, 철재
니즈	노후화, 물동량 감소	지속성장 한계	인프라 조성→활성화	미래 항만 수요 대비
특성화 운영 로드맵	지향	물동량 회복 및 친수기능 강화	운영 효율화	복합 다기능 항만
		기능회복	유지	활성화
추진 사업	• 분항 활성화 가능 재조정 • RO-RO 신규화물 유치 • 친수시설 활용방안 강구 • 항만관련 산업 육성	• 부두운영 효율화 • 선석생산성 향상 • M&A 지원	• 컨테이너-배후단지 연계 • 오일허브(1) 활성화 • LNG 방커링 기지화 • 북신항 3선석 적기 개발	• 오일허브(2) 조성 • 친환경 자동차 부두 • 분항 기능 이전 대비 • 항계확장 어업 보상 해결
	환경 변화	경쟁국 자체 생산 증대, 경기악화로 물동량 감소	海沙 채취 금지로 모래 수급 불안	목재 부두 용도 변경 필요, 배후 단지 부두 수요 발생
부두 기능 조정 방향	실태	호황 대비 물동량 24%▼ 항만 부가가치 330억▼	모래 취급에 대한 부두운영시간 경쟁 심화	목재 물동량 감소로 부두용도 미스 매치
	대책 마련	• 신규 예상수요(660만톤) 고려 단계별 기능 조정 • 부두생산성 회복 -17년(86%)→20년(110%)	• 모래 부두 추가지정 • 친환경 설비 확대 • 항만 기본계획 반영	• 항만수요 예측 협의(KMI) • 목재-잡화 용도 변경 • 항만기본계획 운영

3정 5S 도입 전·후 비교



개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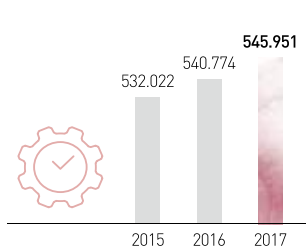
1차 개선(2016)



2차 개선(2017)

울산항 부두생산성

단위: 톤/시간



‘울산항 3정 5S’ 도입을 통한 하역 표준화

컨테이너 부두와 다르게 일반부두는 비효율적 항만시설 운영 및 비표준화된 하역으로 인한 작업 효율성이 저하되어 부두(선석) 생산성이 다소 떨어지며, 이에 하역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하역작업 표준화 및 혁신활동을 통해 하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울산항 이용자(하역사)와 협업하여 제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품, 정위치, 정량(3정)과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5S)를 항만 하역시스템에 도입하여 항만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하역사를 대상으로 3정 5S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는 ‘산업혁신훈동’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하역현장 표준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전문가 교육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하역현장의 안전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고발생 고위험 지역 내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 내 경고문구를 삽입하는 동시에 특수 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하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역현장의 3정 5S에 참여하도록 하여 항운노동조합 최초 안전분임조를 구성하였으며 3정 5S를 내재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울산항의 하역 생산성이 개선되어 2017년 울산항의 하역생산성은 하역생산성 8.2%(130.8톤/시간), 물동량 3.4%(일반화물 전체 물동량은 7.1% 감소) 증가하는 등 3정 5S 활동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대형선박 입항 여건 개선을 통한 항만경쟁력 강화

전 세계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발맞춰 울산항도 대형선박 입항비중을 확대하기위해 입항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대형선박을 수용할 수 있도록 5만 톤급이 접안할 수 있는 용연부두를 2016년 조기 개장하고, 2017년에는 액체화물 T/S 부두를 개장함으로써 대형선박들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안벽 직하 수심을 조사하여 해도에 반영한 후 최대 접안가능 선박 하역 기준을 삼았으나 선박 하부가 U자인 점을 착안하여 안벽으로부터 1~3m 이격하여 수심을 표기함으로써 더 큰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접안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부두 인프라 개선

울산항 부두는 대부분 20년 이상 노후화되었으며, 당초 설치한 하역시설을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어 부두생산성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는 또한 물동량 증대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부두 운영사에서 하역장비 현대화 및 인프라를 위한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하역장비 현대화 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한 이차보전금 지원 금액은 금액은 2016년 17백만 원에서 2017년 32백만 원으로 87.2% 증가하였으며 2017년 항만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는 전년대비 843% 증가한 총 106,441백만 원을 달성 하였습니다.

산업용 탱크터미널 활성화를 통한 신규 액체화물 유치

민간 탱크터미널과 역할 분담을 통해 신규 화주 타겟 마케팅을 진행하여 액체화물 유치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언론매체(탱크 스토리지 매거진 등)를 대상으로 한 홍보-마케팅 활동과 세계 3대 석유가격 평가 기관인 플라츠(S&P Global Platts)가 주관하는 액체화물 저장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통해 동북아 액체물류 중심 항만으로 위상을 제고하고 중장기적 화물창출 루트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자동차 환적화물 유치를 통한 부두 활성화

울산항에 위치한 자동차 제조 회사의 만성적인 야적장 부족으로 타 항만으로 이탈하는 자동차 화물을 유치하기 위하여, 항만 인프라를 개선하고, 유관기관 및 업체 협업을 통한 전방위적 신규화물 유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전략적 인센티브 4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하역노조 운임을 30% 인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치한 2017년 신규 자동차 환적 화물은 61,587대(자동차 71만 톤, 중장비 29만 톤)를 기록하였습니다.

고객을 지향하는 서비스

고객만족경영 추진체계

고객만족경영 전략

울산항만공사는 '고객 가치 실현으로 상생을 추구하는 항만'을 고객만족경영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서비스 역량 강화, CS 참여 환경 조성, VOC 활용성 증대, 고객만족도 향상의 4대 전략 목표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의 고객만족경영은 울산항 이용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고객이 공사와 함께 울산항을 더욱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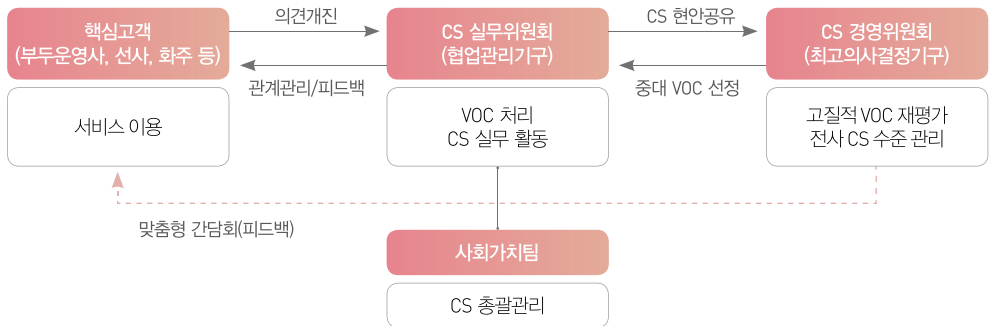
고객만족경영 전략체계

CS 비전	고객가치 실현으로 상생을 추구하는 항만			
전략목표	서비스역량강화	CS 참여 환경 조성	VOC 활용도 증대	고객만족도 향상
성과목표	서비스 실행력 강화	CS 추천 기반 강화	VOC 프로세스 체계화	만족도 향상 제고
실행 과제	• 맞춤형 CS 교육 시행으로 서비스 질 개선 도모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기획 확대	• CS 경영 체계 재정비를 통한 전사 CS 추진 기반 조성 • 고객 소통(참여) 채널 내실화를 통한 서비스 발굴 및 혁신 추구	• 프로세스 재정비를 통한 전사 VOC 활용 범위 확장 • VOC 실행력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도 향상	• 조사 프로세스별 전략적 대응 관리 • 고객집중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성과지표	내부 CS 역량 강화 (비계량)	전사 CS 실행력 제고 (비계량)	기한 내 VOC 처리율 (계량)	PCSI 결과 향상 (계량)
모니터링 및 피드백	계획수립	과제수행	과제점검	평가 및 결과 활용
	• 전년도 성과분석 • 사업정의 및 성과 지표 목표 설정 • 세부 실행과제 도출	• 내부 CS 역량 강화 • 참여형 CS 환경 조성 • VOS 프로세스 체계화 • 만족도 향상 제고	• 추진사항 중 문제점 및 장애요인 점검 • 추진 성과관리 • 해결 극복방안 모색	• 내외부 평가 실시 • 지적사항 조치 • 성과공유 및 확산 • 향후 개선과제 도출

추진조직

CS 실무위원회는 고객접점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업관리기구로서 당사의 고객중심 경영 실현을 위해 핵심 고객이 개진한 불편·건의사항을 처리하고, 고객접점에서 실질적인 CS 활동을 추진합니다. CS 경영위원회는 최고의 사결정기구로서 당사의 임원(사장, 본부장)과 고객접점 부서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사 CS 수준을 관리합니다. CS 담당부서인 사회가치팀은 전사 CS 활동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발굴하고 대내외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당사와 핵심고객과의 관계가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질적인 VOC에 대해서는 핵심고객과 함께 해결방안, 소요 기간 및 예산 등 재평가를 통해 중대 VOC를 선정하며, CS 실무위원들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CS 추진조직 구성 및 운영 프로세스



고객의견(VOC) 청취와 처리

VOC 수집 채널

울산항만공사는 항만 서비스에 최적화된 VOC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울산항 운영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의 소리를 청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울산항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을 '핵심고객'으로 분류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VOC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서비스품질 향상 및 서비스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CS 개선과제 도출 및 공사의 의사결정에 핵심고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객 참여형 CS 정책 결정 조직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서비스 개선 현안을 논의하고 의사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부 고객군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CEO가 직접 고객사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고객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방향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사회와 국민, 정부 등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고객에 대해 지역사회 상생협의회, 정부-울산항만공사 간 업무연락방, 기자 간담회, 전문분야별 자문 등의 채널을 활용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VOC 대응 프로세스

고객에 의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은 수집단계부터 환류 및 내부평가가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일련의 프로세스로 체계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VOC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관리부서에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VOC 처리 프로세스



고객 불만관리

고객의 불만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VOC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단, 7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처리계획 또는 경과 알림)를 목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불만 접수와 처리활동에 대해서는 고객서비스 현장 서비스 이행표준을 기초로 하여 분기별로 점검함으로써 고객접점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개선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VOC 처리 결과는 분기별, 연도별로 분석하여 관련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반복 민원 질의에 대한 불만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민원질의 사례집(FAQ)을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에 게시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 처리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지속 불만이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는 고질적 VOC로 분류하여, 임원과 실무자, 고객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개선위원회를 통해 추진방안 및 소요예산 등을 재평가하여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및 개선사항 시행

매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PCSI) 및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6년 PCSI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고자 자체 만족도 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다양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7년도에는 민원센터 배치를 변경하고 민원센터 근무형태 변경 및 서비스 매뉴얼 배포로 직원 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VOC 채널

Inbound
홈페이지(민원)
고객지원센터
국민공모전
고객사 간담회
울산항 견학
클린신고센터

Outbound
연도별 PCSI조사
CSI 조사
CEO 고객사방문
마케팅 활동
학회, 컨퍼런스
상생협력 활동

VOC 관리 실적

구분	2015	2016	2017
VOC 접수	34건	13건	9건
VOC 처리	28건	13건	9건
처리율	83%	100%	100%

고객만족도(PCSI)	단위: 점		
2015	2016	2017	
91.4	90.1	89.0	

고객을 지향하는 서비스



울산분항 선원복지센터



울산분항 근로자 휴게소

고객만족 추진활동

항만이용자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운영

울산항을 이용하는 외항 선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 제공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해상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울산분항 선원복지센터를 개축하였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2015년 6월 국제선원복지협회(ISWAN)에서 주관한 선원복지평가에서 국내 항만 중 처음으로 우수항만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한 차원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선원복지센터 개축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16년 9월 재개장한 선원복지센터 내에는 국제전화, 국제화상채팅, 무료 이발서비스 및 각종 놀이시설(탁구대, 포켓대, 영화감상실 등) 등을 제공하며 사회적 기업의 운영을 통해 사회적 공유가치 창출 및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 서비스 및 업무 반영

울산항만공사는 고객의 소리를 바탕으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서비스 개선과 편의 증진활동을 통해 고객만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고객 및 대국민 항만서비스 개선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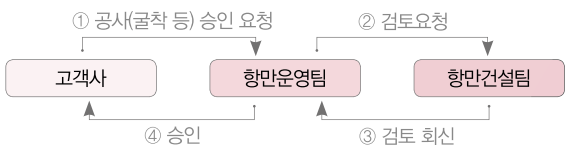
대상	서비스개선	주요개선사례
항만근로자	부두 내 근로환경 개선	• 분항 및 신규 용연부두 내 근로자 안전쉼터 5개소 추가 설치 • 항만 내 화단 설치로 부두환경 개선 및 지역 화해 농가 상생 지원 • 보행자 및 자전거 안전 위한 배후단지 소화전 시설 개선(충돌방지 안전틀 13기)
	선박 정박지 확충	• 급유 목적의 울산항 이용 선박에 W1 정박지 제공 및 VTS 안내 확대
선사 부두 운영사	고객응대 직원 전문성 제고	• 내방고객 고객여정에 따른 창구응대 및 서비스 표준화 • 부서별 전문직위제 수립 시행
	울산항 전망대 콘텐츠 다양화	• (전망대) 키오스크 선박 제원 관련 콘텐츠 보완 및 내방객 안전을 위한 시설물 보강 • (미니홍보관) 선박입출항 프로세스 콘텐츠 보강 및 포토존 설치
일반국민	알기 쉬운 울산항 설명	• (울산항 종합가이드북) 울산항 이용 및 입주 유관기관 대상 • (울산항 소식지 '푸른너울') 항만 이용 소식 게재(부두 내 도로 이용법 등)
	견학 편리성 제고	• 부두 견학신청 절차 축소 및 온라인 신청(SMS 확인) 개선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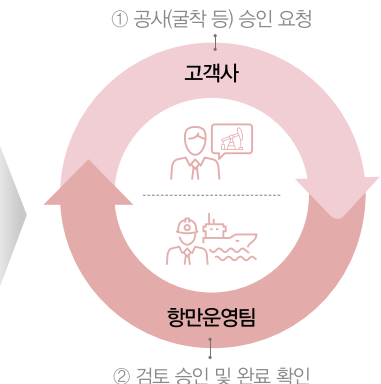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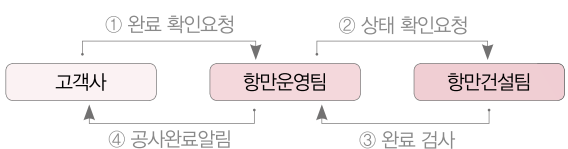
부두운영사가 매립권 검사를 위한 굴착, 포장 등 항만시설 유지 보수 및 시설물 복구를 위한 자체공사 수행 시 울산 항만공사 민원부서(항만운영팀)와 대응부서(항만건설팀)의 이원화로 신속한 대응이 미흡하여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민원부서에 건설 전문인력(토목직)을 배치하여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운영사의 부두공사 기간을 단축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원스톱 행정서비스 프로세스

-고객사 보수 요청 시



-고객사 보수 완료 시



항만서비스 정보공개

항만서비스 정보공개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이용 편의성을 도모하고 행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울산항과 관련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을 비롯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항만관련 정보공개 목록

구분	정보 공표 목록
항만개발 항만시설	울산항 개발계획, 울산항 사업,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등 11개
항만물류 오일허브	항만운영통계, 울산항 시설현황, 세계 석유시장 분석 등 12개
항만운영	시설 사용료 종류 및 요율, Port-MIS 이용정보, 항만 용어 등 10개

CS 경쟁력 강화

CS 마일리지 운영

울산항만공사의 내부 직원들이 고객 불편-애로사항에 대해 다양하게 학습하고 CS 의식을 내재화하기 위하여, 전직원 CS 교육 및 CS 활동, VOC관리 등 CS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CS 경영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CS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항만 이용 편의·환경개선을 위하여 실제 이용자 및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울산항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대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하였습니다.

아이디어 공모 및 추진실적

공모대상	채택아이디어	추진실적
내·외부 고객	부두내 휴게쉼터 마련	안전사고 점검 및 항만근로자 서비스개선을 위한 분항 내 휴게시설 설치
대국민	선박 정보 서비스 제공	전망대 키오스크 리뉴얼을 통한 선박정보 자료 제공

전사 CS 워크숍 실시

울산항만공사는 2017년 내부 직원들이 고객의 소리(VOC) 발생에 대해 공감하고 내부적인 발생요인들을 논의해 볼 수 있도록 전사 CS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직원들은 그룹별로 VOC 발생 요소와 그 원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주요 개선 요소 및 문제 현상으로 'ERP 장애로 인한 고객 서비스 제공 처리속도 저하', '내부 의사소통 애로로 인한 고객 서비스 질 저하', '직원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고객 요구사항 이해도 부족'이 도출되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해당 부서로 전달되어 실질적인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17년 CS 워크숍 결과 및 조치 실적

개선요소	현상(문제점)	원인	개선방안	조치실적
ERP장애	처리속도 저하	관심부족, 대응미흡	예산배정, 전문개발자 채용	ERP TFT 운영(물류정보팀)
내부 의사소통 애로	고객서비스 저하	소통부족, 분위기	소통채널 다양화	토론방 게시판, 직급/부서간 간담회, 부서 자율 워크숍, 직원생일 축하 간담회 등 추진(경영지원팀)
직원 전문성 부족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낮은 이해도	전문인력 부재, 빈번한 보직 이동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부서별 전문직위제 시행(인력개발팀)

고객을 지향하는 서비스

고객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정보보안 관리 체계

경영환경 및 정보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내외부 사이버 위협 및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기반 시설인 항만물류 정보망을 보호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항만 공공기업으로서 국가보안정책을 선 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정보보안정책 및 중장기계획 수립, 정보보안 교육 및 훈련, 사내 보안 취약점 점검·감사활동 등 일련 의 보안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관리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관리전략

사업 비전	정보보안 수준 고도화를 통한 U-Port 구축		
추진 전략	정보보안 체계 강화	정보보안 문화 구축	사이버보안시스템 강화
성과 목표	정보보안 운영환경 최적화	사내 정보보안 의식수준 고도화	사이버침해사고 무사고 달성
실행 과제	• 정보보안 업무체계 정비 • 임직원 정보보안 의식제고 • 용역업체 보안관리 및 점검 • 정보보안 감시활동 추진	•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향상 노력 및 개선 모니터링 •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 추진 및 이행 점검 • 사이버위기대응 역량강화	• 노후보안시스템 교체 • 시스템 보안취약점 개선 및 정기 이행 점검 • 정보보안시스템 가용성 및 최신화 유지

정보보호시스템 인프라 구축

항만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Port-MIS)을 인터넷과 분리된 별도망으로 분리 운영함 으로서 외부로부터의 사이버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망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업무시스템에 대한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고, 업무수행을 위해 제한적으로 필요한 망연계 구간에 보안성이 높은 일방향 전송시스 템, 자료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유출차단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며, 조직 구성원들의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PC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울산항만 공사에서 보유한 개인정보 전량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보안조치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울산항만공사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자는 기존 팀장급에서 2017년 임원급으로 선임하여 경영진 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기반시설보호책임자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전사적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사적으로 PC 및 서버의 USB포트를 물리적 봉인과 문서보안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차 단하였으며,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주간' 운영을 통해 일반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위험요인을 상시적으 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울지연습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2년 연속

‘우수’



사이버 위기 예방 및 점검

울산항만공사는 2013년부터 해양수산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에 참여하여 365일 24시간 실 시간 보안관제 및 국가사이버안전센터와 공조를 통해 정보보안 환경변화와 사이버 위협에 대한 높은 방어태세를 유 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위기 대응 긴급대응반을 상시 운영함으로써 국내·외 사이버 위기발생 시 대처할 수 있 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매년 정보보안 인프라 확충사업 또는 정보보안 컨설팅 사업을 통해 정보시스 템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안진단에 따른 적기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관리활동 개선을 통해 사이버보안 수준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해킹메일 대응체계

울산항만공사는 의심메일 수신 시, 원클릭 버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해킹메일 에 대한 원문 코드 분석과 메일 내 첨부파일 중 악성코드 유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임직원의 해킹메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해킹메일 대응훈련을 분기별(연 4회)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정보통신기 반시설 상·하반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연 2회), 정보시스템 사이버공격 대응 실전훈련(연 1회) 등을 통해 사이버 공 격으로부터의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울산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 주관 해킹메일 대응체계 평가에서 '양호'를 부여 받아 전년(보통)대비 등급이 향 상되었으며, 2017년 울지연습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항만공기업 중 에서는 유일하게 해킹방어대회에 해양수산부 대표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보보안 역량 강화 및 문화 구축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보안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울산항만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정보 보안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내부 뿐만 아니라 울산항 전체의 사이버테러 및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 해 정보화 용역업체, 울산항 고객을 대상 교육도 제공하여 울산항 구성원 모두가 정보보안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보보안점검 및 개선조치, 정보보안 홍보활동참여, 해킹메일 의심신고 등의 관련 활동을 포인트로 관리하는 '보안포인트제도' 시행을 통해 구성원의 보안정책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이버 보안 문화 조기정착을 견인하였습 니다.

정보보안 교육(2017)

교육구분	교육내용	교육횟수	비고
울산항만공사 임직원	임원 및 일반직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3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직무담당자 교육	6회	
	부서별 분임 정보보안담당자 교육	2회	
	보안근무자(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대상 교육	3회	
	신입사원 및 체험형 인턴 정보보안 교육	수시	14명
정보화 용역업체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교육	상시	5개사
울산항 고객	랜섬웨어 대응 설명회(정보보안 교육)	10개社	7월

대외평가

2017년 국가정보원 정보보안관리실태 평가에서 울산항만공사는 88.46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6.88점 상승한 성과 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공기업 평균 대비 1.03점이 높은 것으로 지속적인 정보보안 활동과 전년도 지적사항을 적극 적으로 개선·보완한 결과입니다. 아울러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안 문화를 구축하는 등 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 해양수산부 정보보안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해양수산부로부터 기관 표창 을 받았습니다.

2017년 해양수산부
정보보안 부문

우수기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UPA

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제공으로 사회통합 달성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울산항 구현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발전 기여

윤리·청렴한 기업문화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추진체계

고용불안정과 청년 실업 등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정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였으며 항만 공기기업인 울산항만공사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일자리 창출 전략을 수립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방향과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2017년 일자리추진단(TF)를 신설하여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콘트를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2018년 2월 조직개편 시 정규 부서인 '사회가치팀'으로 확대·개편하여 전사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전략

사업 목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 실현을 위한 실행체계 구축 및 성과창출		
세부 사업	공공민간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차별 없는 일터일 가정 양립	취업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성과 목표	일자리 창출 실행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	고용안정·차별해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질 개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취업 지원체계 구축
실행 과제	• (민간)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과제 발굴 및 실행 역량 집중 • (공공)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 일자리 창출 • (지역) 사회적 기업 협력 및 지역 발전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예외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 (양극화 완화) 근로자 차별 금지 및 합리적 보상체계 (직무급 등) 마련 • (질 개선)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제도 활성화	• (청년) 청년취업자 구직애로 해소를 위한 취업활동 지원 • (신중년) 퇴직자 일자리 매칭 및 창업교육 지원 • (여성) 적합직무 발굴 및 출산·육아활동 병행체계 구축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

울산항만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특수경비, 시설관리, 정보화 등 총 3개 부문의 비정규직(파견 및 용역)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상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업무 특성상의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총 82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울산항만공사는 자회사 설립 및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원과 현원의 차이를 면밀히 관리하여 결원 발생으로 인한 인력대체를 통해 장·현원차를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보안경비업무의 경우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를 3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 근무형식으로 전환하여 장시간 근무에 따른 근로자의 삶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신규 일자리를 확보하였습니다.

민간 일자리 창출

고유 핵심사업을 통한 민간부문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임직원, 항만관련 기업, 항만업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와 워크숍, 간담회, 설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하여 일자리 창출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그 결과 울산항 배후단지에 제조업 중심의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고용 및 생산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울산항의 강점을 활용하여 자동차 환적화물 유치를 통해 하역 등 항만 관련 연관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조달 위탁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협력 및 위탁업체의 불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였으며 용역사업 계약 시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제도'를 시행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울산항 특화 Start-Up 플랫폼 구축 지원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하여 울산항 특화 Start-Up 플랫폼 구축
- 육성되는 창업팀을 울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 울산항의 새로운 일자리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약 10개의 창업팀 발굴 육성

장생포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 푸드트럭 및 카페 존 조성을 통한 민간 창업 일자리 창출
-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간접 일자리 창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56p 참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 지역 취약계층의 좋은 일자리 창출: 15개의 창업팀 발굴 및 육성(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울산지역 사회적기업가 창업공간 '꿈꾸는 가치창작소' 조성으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59p 참고

태양광발전사업

-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투자 유치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항만 구현
-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민간 일자리 4.6명* 창출

*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 적용(전력사업: 10억원당 2.3명)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50p 참고

균등한 기회 제공으로 사회통합 달성

인사 제도에서의 기회 균등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

울산항만공사는 채용 시 청년과 지역인재, 여성 등을 우대하는 제도 운영을 통해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동시에 일자리 확대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고졸 채용확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 경력단절 여성 채용, 지역인재 채용 가점제도, 실버채용 등의 제도를 운영하여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고졸 적합직무 발굴을 통해 2018년 현재는 정원의 10%인 10명이 고졸 사원이며, 고졸 사원의 경우 입사 후 4년이 경과하면 대졸 신입사원의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한편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시작된 공공기관 신입직원 채용 지역인재 가점 제도는 당초부터 울산지역을 본사로 두고 있는 울산항만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제도였으나, 공사는 본 제도를 원용하여 지역인재 제한 경쟁을 실시하여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인재양성 차원에서 울산에 위치한 대학교인 울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재학생 체험형 인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체험형 인턴으로 선발된 인턴사원은 실습기간 동안 직장문화를 체험하고 직무역량을 배양하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울산항만공사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단기일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열린 고용을 실천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호대상자, 60세 이상 퇴직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관리자 확대 노력

울산항만공사는 최근 3년간 여성 채용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여성 관리직급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등 인사 과정에서 여성 비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관리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여성 리더십 강화', '여성 중간관리자 역량 강화'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개방형계약직(물류정보팀장) 채용공고 시 여성 우대 요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신규직원 면접 외부위원, 사장선임 임원추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채용실적 및 인력 운영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5	2016	2017
정 원(청원경찰 제외)		93	93	101
현 원(청원경찰 포함)		116.75	118.5	120.5
정년퇴직		4	1	2
명예퇴직		1	2	0
무기계약직 현원		11	8	8
(직접고용)비정규직 현원		0	0	0
간접고용 현원		83	95	86
정규직 신규채용	여 성	2	5	4.5
	장애인	—	—	1
	지역인재(비수도권)	8 (청경3, 무기1)	4	4
	고졸자	2 (무기1)	1	1
	전 체	15 (청경6, 무기1)	7	6.5
전체현원 중	여성 수 및 비율(청경제외)	23(26.8%)	27.5(30.7%)	32(32.5%)
	여성관리자* 수 및 비율	1(4%)	1(3.5%)	1(3.5%)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	6(4.0%)	5(4.0%)	5(3.9%)

* 여성관리자: 3급(차장) 이상의 여성직원

공정거래 문화 조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구매

울산항만공사는 공공구매 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구매 시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환경적 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장의 경쟁구도 속에서 상대적으로 조달 기회를 획득하기 어려웠던 사회적 약자 기업을 배려하고, 계약의 모든 진행과정을 공개하며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구매 제도의 정착을 위해 2016년에는 공공구매 업무편람을 제작하였으며,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약담당자의 공공구매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한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

입찰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50% 이상으로 구성하며 계약평가 시 조달청 시스템을 통해 외부위원의 개별 평가점수를 100% 공개하는 협상계약 평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기업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적제한을 완화하였으며 울산항 배후단지 입주 자격 평가기준을 합리화하여 물류업 대비 불리한 제조기업 입주 진 입장벽을 해소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였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행정

협력사의 사회적 책임 확산을 위하여 계약 시 협력사의 사회적 가치 확산활동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상근직 신규채용이 가능한 영역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 노력에 대해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에게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협력사에 근로자 인권보호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영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영역 근로자의 적정 임금수준 보장 및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하여 영역근로자를 보호하는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여 원수급자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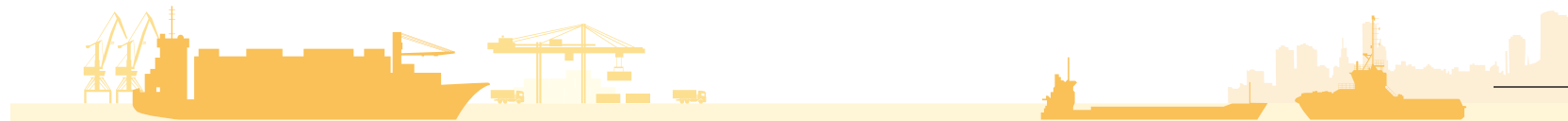
공정거래 주요 성과

지표	단위	2015	2016	2017
불공정거래 위반건수	건	0	0	0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률	%	97	51.6	71
전자입찰률	%	100	100	100
전자계약 체결률	%	92	98	98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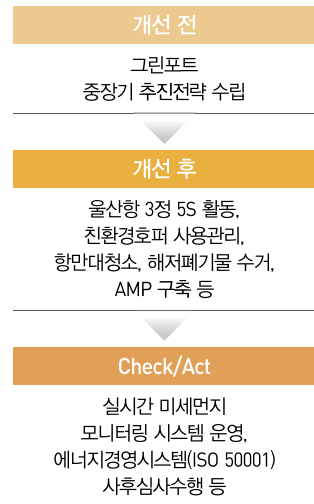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계약(특약) 등 원-하도급사와의 관계에서 자행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상시 신고채널로서, 울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물품·용역·공사 계약에서 발생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울산항만공사는 기존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던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2016년 5월부터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는데 노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하도급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통해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문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울산항 구현

항만 환경관리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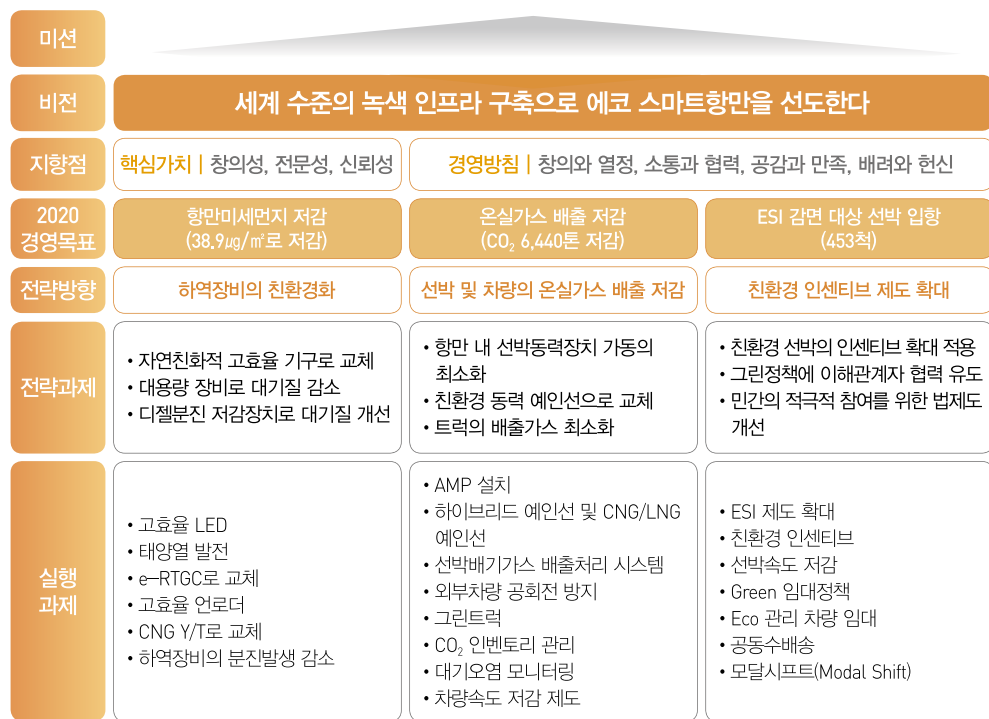
친환경 항만 조성

그린포트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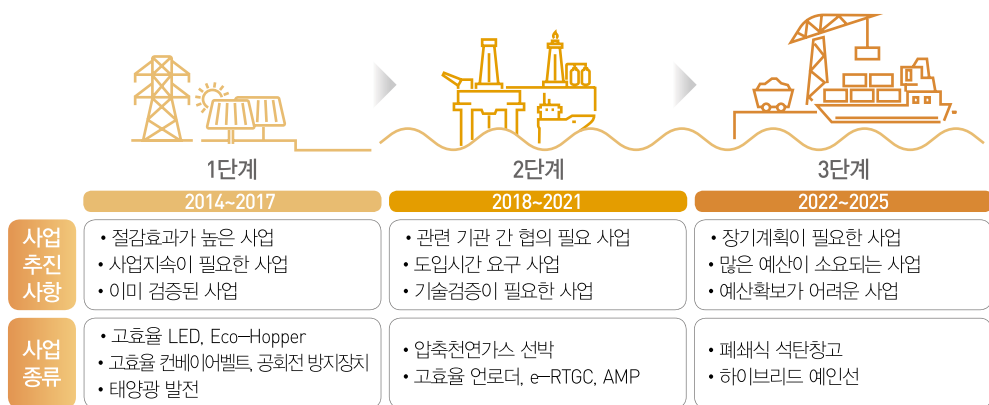
해양수산부는 항만 개발·운영 전반에 걸쳐 자원·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항만을 구현하는 그린포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항만공사는 국제 환경규제 및 정부의 기후 변화대응 정책기조에 부응하며, 기업시민으로서 울산항을 보다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항만으로 성장시키고자 그린 포트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저탄소 녹색항만을 구현하기 위해 울산 항 중장기 그린포트 추진전략을 물리하여 재정립하고 울산항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린포트 중장기 계획은 울산항 대기·수질·오염 문제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녹색항만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항만에서 발생하는 석탄, 사료부원료 등 화물 분진문제와 선박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항만 환경관리활동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장기 그린포트 추진전략



그린포트 실천 로드맵



울산항 미세먼지 저감 성과 단위: $\mu\text{g}/\text{m}^3$

구분	2015	2016	2017
울산분항 인접 측정소	46.83	43.33	44.75
도시 평균	45.17	43.17	42.67
항만 내 주요 6개 부두*	—	—	43.20

* 측정기 설치 위치: 울산분항 2km 이내 울산항역 인근

** 자료 출처: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울산항만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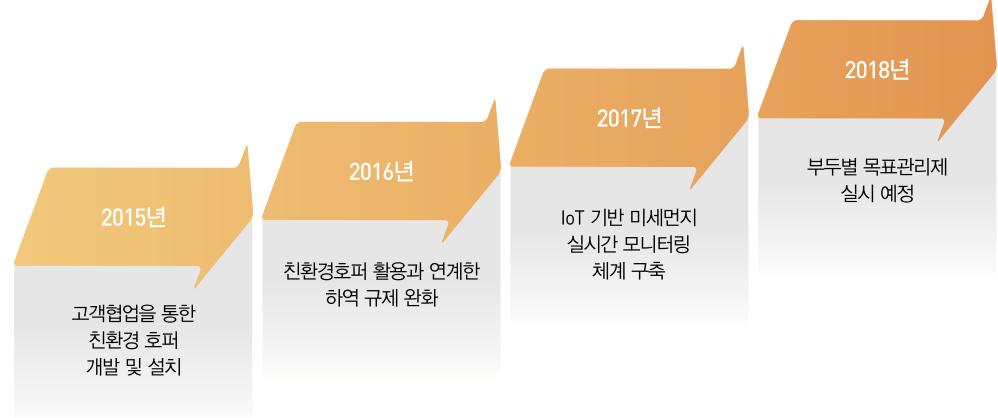
미세먼지 관리 활동

울산항은 사료부원료의 하역, 보관 과정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항만 내 근로자 및 인근 지역주민으로부터 근로·생활환경 악화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해 왔습니다. 1차적으로 비산먼지 유발 화물의 노면 아적 및 하역을 일부 제한하였으나, 이는 울산항 사료업계 및 하역사의 경영악화로 이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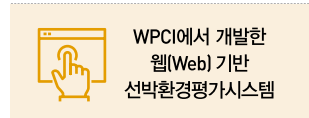
울산항만공사는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비산먼지까지 저감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고안하였고, 개발사 및 하역사와 공동 R&D를 통해 친환경 호퍼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상용화하였습니다. 이 친환경 호퍼는 기존 래식 호퍼 대비 80% 이상 비산먼지를 줄일 수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억제 호퍼장치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울산항만공사는 해당 친환경 호퍼 활용을 조건으로, 사료부원료 하역을 승인하였으며, 이후 고객의 친환경 호퍼 사용에 따른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울산항 처리량이 전무하던 사료부원료 23만 톤을 신규 유치하여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비산먼지 농도도 저감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해결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으며 2017년에는 국내 항만공사 최초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인 IoT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장비를 6개소에 설치하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소음,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6개 항목을 실시간으로 측정 및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측정결과와 부두 내 환경기준 미세먼지(PM10 100 $\mu\text{g}/\text{m}^3$), 초미세먼지(PM2.5 50 $\mu\text{g}/\text{m}^3$) 초과 시 하역중지를 조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쾌적한 울산항 대기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만 미세먼지 감축 노력



환경선박지수(ESI)란?



-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온실가스를 0점~100점으로 산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 항만당국이 ESI선박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친환경선박의 입항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자율적 제도



친환경 선박 사용료 감면제도 도입

울산항은 선박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항만공사는 국가적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선박으로 인한 탄소배출량 저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제항만협회 산하의 세계 항만기후계획(WPCI)이 개발한 환경선박지수(ESI)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울산항 여건에 부합하는 ESI 사용료 감면제도 설계를 통해 ESI 31점 이상 울산항 입항 선박에 대하여 선박입출항료 10%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 267척에 대해 총 121백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AMP(육상전력공급시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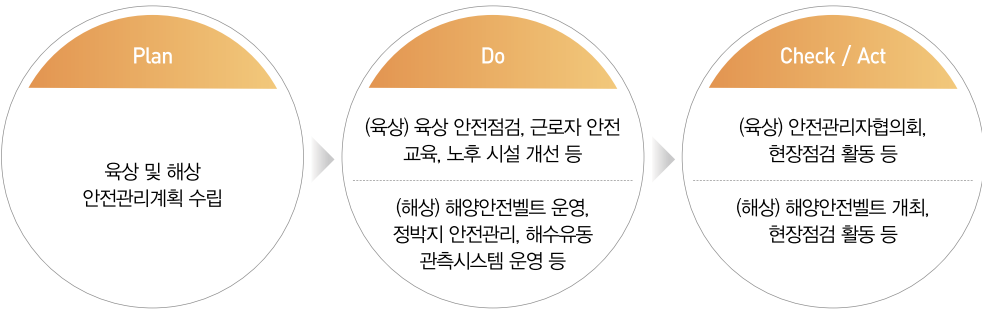
울산항만공사는 친환경 선박의 울산항 입항을 유인하기 위해 AMP(육상전력공급시설) 중장기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AMP 시설은 방커C유 등 선박의 연료를 사용하여 엔진을 가동함으로써 선박이 부두에 접안할 때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대신, 육상에서 전기를 직접 공급해 주는 것으로 항만의 온실가스 감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2017년 본항 1, 2 부두 내 하버크레인 겸용 선박 AMP 5개소 설치를 착공하였으며 용연부두 등으로 설치를 확대하여 2021년까지 4개 부두에 AMP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전 항만 조성 1: 육해상 안전

육해상 안전관리

울산항은 배후에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 3위의 액체화물취급 항만으로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의 안전위험 이슈를 크게 육상과 해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만 안전관리 프로세스



민·관·공 협업을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울산항 유관기관과의 안전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시책을 공유하고 재난상황 발생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안전홍보 네트워크 교육 협력 등을 통해 해양 안전사고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한 13개의 기관 및 업단체가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만 유관기관 8개 기관장은 정례회의를 통해 해양안전의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시책을 결정하고 있으며, 업단체를 포함한 13개 기관 실무자가 실무협의를 통해 종합적·체계적 해양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울산항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한 성과는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 2017년 행정안전부 ‘안전문화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울산항 유관기관 안전협의체 운영 현황	
구분	주요내용
울산항 해양안전벨트	울산항 유관기관 및 업 단체장과 함께 울산항 안전 관련 정책 및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울산항 안전사고 저감대책을 마련
울산항 안전관리자 협의회	안전 위해요소 제거,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 등 하역안전사고 저감 노력
안전보건 협의회	사고재해 유형, 실태 분석 및 항만 안전사고 저감 대책 마련

하역 종사자 전문성 강화

울산항은 액체 및 위험물 취급물량 국내 1위, 세계 3위의 항만으로, 위험물 하역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위험물부두의 특성에 맞추어 세계적으로 인정된 전문검사관이 각 부두를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물 취급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기업단체로 구성된 위험물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취급화물 안전관리 고도화 연구 및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역장비 외주화로 개인사업자인 외주 근로자의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공강대를 형성하고,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하역장비 근로자에 대해 의무안전교육을 시행하였으며, 미 이수자의 항만 상시출입증을 회수조치하는 등 강력한 안전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울산항 구현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울산항만공사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고 국가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7년 항만 내 창고지붕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을 위해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017년 11월 울산항만공사, ㈜동부익스프레스, 영남에너지서비스(주)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항 제3부두 배면 동부익스프레스 창고옥상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에서 영남에너지서비스는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년 후 동 시설을 UPA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창고 소유주인 동부익스프레스의 사용승낙 조건에 힘입어 태양광발전설비는 착수 이후 3개월 만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시설 규모는 13,410㎡의 창고상부에 1.1MW로, 일반가정집 400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본 사업은 울산항에서 최초로 진행된 민간투자 추진 태양광 발전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울산항만공사는 앞으로도 태양광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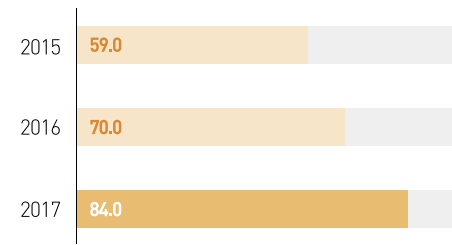
LED 투광등 개발 및 설치

에코 항만 조성을 위해 부두 내 조명을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LED등으로 교체해왔습니다. 특히 2009년 국내 최초로 항만용 LED 투광등 개발, 설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항만용 LED 투광등 개발을 민간기업과 공동 수행하여 교체를 시작하였으며, 2017년까지 전체 조명등 중 96.1%를 LED등으로 보급하여 기존 투광등 대비 CO₂ 배출을 연간 397,45tCO₂e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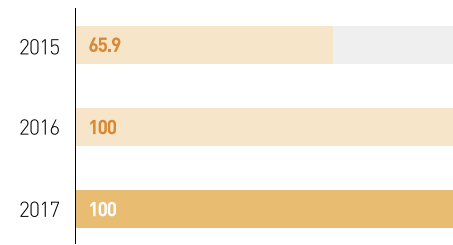
LED 보급률

단위: %

• 항만조명



• 건물조명



소형 태양광 인식등 설치

육지로부터 먼 거리의 방파제 등 전기 공급이 불가능한 항만시설에 에너지 자립형 인식등 설치는 필수적입니다. 울산항만공사는 2016년부터 항만용 소형태양광 인식등 개발업체와 협력하여 항만여건을 고려한 인식등을 개발하였으며 2017년 시제품을 매암부두, 남화물양장 등에 설치하였습니다.

소형태양광 인식등은 외부 전력 인입이 필요하지 않고 자체 발전이 가능하며 배터리 충방전 방식을 도입하고 IP68방수 기능을 탑재한 장점이 있어 항만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시범설치 구간에 대해 부두 이용자의 의견조사 결과 시인성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울산항만공사는 녹색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에너지 자립형 인식등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준설토 처리로 친환경 항만배후단지 건설

울산항은 지리적으로 태화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지속적인 토사 유입으로 3~4년 주기의 울산항 유지준설이 필요하나, 준설토를 외해 특정 해역에 투기하므로 해양환경 파괴, 민원, 원거리 운반에 따른 높은 처리 비용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2공구) 매립계획을 당초 바다모래(80%), 육상 토사(20%)를 울산항 유지준설토로 변경하여 해양 파괴가 없는 친환경 항만배후단지를 건설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 설치



태양광 인식등



2017 안전문화대상



울산항 로딩마스터 전문 안전교육

안전 항만 조성 2: 항만 건설·시설 안전

건설현장 3년 연속 무재해 달성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외부전문가가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총괄 책임자인 발주처를 모니터링하여 상호 보완이 가능한 상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 시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참여하는 건설현장 안전 관리 CoP를 구성하여 울산항에 특화된 안전관리매뉴얼 발간, 체험형 안전교육장 설치, 사고체험 VR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현장여건 파악과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가 가능해졌으며 3년 연속 무재해 건설현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안전 모니터링단 운영체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울산항

부두시설에 대한 내진보강계획은 2014년부터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설계를 거쳐 2015년 본격적으로 보강공사를 시행되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대체부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공사방법을 육상에서 해상으로 변경, 작업대 추가 투입(1set→2set) 등을 통해 2017년 3월 준공 예정이던 공사를 8개월 단축하여, 2016년 9월 경주지진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도 계획하여 2016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건축시설 내진보강 설계 시 항만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설계 수준을 내진 2등급에서 1등급 수준으로 상향하여 진행하였으며 2017년에 내진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빈틈없는 시설물 점검과 보수·보강

관리 중인 시설 37개소 중 20년 이상 된 시설물이 67.9%로 울산항은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 매년 항만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관리대상시설의 주기적인 점검과 시설물 보수·보강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수중부 보수·보강 결과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감독자가 직접 수중검측을 시행하여 5년 연속 시설 등급 B이상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시설 점검 및 보수·보강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자체	3회	6회	6회
안전점검	용역 정밀점검(1·2층) : 12개소	정밀점검(1·2층) : 5개소 정기점검(기타) : 8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1·2층) : 11개소 정밀점검(기타) : 1개소
보수·보강	10개소 2,410백만 원	12개소 1,666백만 원	19개소 1,260백만 원



건설현장 3년 연속

무재해 달성



보수·보강 수중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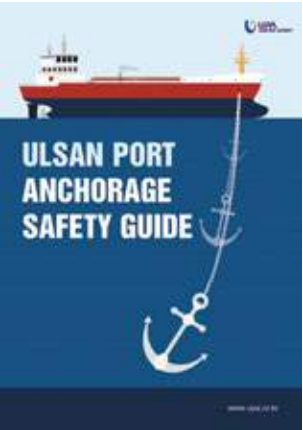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울산항 구현

육상안전사고 발생건수	단위: 건		
2015	2016	2017	
12건	10건	13건	

해상안전사고 발생건수	단위: 건		
2015	2016	2017	
20건	9건	15건	



일반화물 안전매뉴얼



정박지 안전매뉴얼

육상 하역 안전문화 조성

육상 하역 안전사고와 저감을 위해 화물별 맞춤형 안전매뉴얼(일반화물, 벌크, Ro-Ro 화물 등)을 제작배포하고, 항만근로자가 안전매뉴얼 준수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컨설팅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안전보건공단과 합동 안전패트론훈운영 등 다양한 안전점검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시설물, 하역절차 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R&D를 통한 안전사다리 개발, 우수 안전관리사업장 포상 등 안전과 관련된 R&D 투자활동과 인센티브 제도 운영을 통해 하역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휴게시설 확보

2016년 육·해상 안전사고 중 대다수는 근로자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신규부두와 본항 내에는 근로자 휴게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된 휴게시설로 인하여 근로자가 편히 휴식하기 어려워 작업 중 집중력이 저하된다는 의견을 울산항운노조 및 부두운영사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휴게시설 설치 및 필요사항과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근로자 휴게취약지역에 컨테이너를 활용한 안전휴게시설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항만근로자 휴게소 및 식당을 증축하여 충분한 휴게장소를 제공하였으며 근로자 피로감에 따른 집중력 저하 예방을 도왔습니다.

해양 기상정보제공 고도화

울산항만공사는 기상악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항만 최초로 맞춤형 해양기상 국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체로부터 울산항에 특화된 해양기상 국지정보(풍향, 풍속, 파고 등 기상정보 및 해수유동 관측자료)를 수신받아 하루 두 차례 관제실의 방송을 통해 입항중인 선박들에게 제공하고, 기상 악화 시 선박들의 대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 악화시에는 SMS, SNS를 통해 항만이용자에게 해상기상정보를 제공합니다. 2017년에는 울산항 기상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실시간 울산항의 풍향, 풍속을 제공하며 전문 예보관을 활용하여 울산항의 와·내항 기상정보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기상악화 시 적극적으로 선박대피협의회를 개최하여 항내 안전을 확보하고 24시간 비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항선박 안전 확보

울산신항의 점진적 개장에 따른 항세 확장 및 통항선박 증가로 정박지 부족으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집단정박지(E1~E2 구간) 확장을 통해 선박 밀집도를 완화하고 충돌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 집단정박지 확장에 따른 안전조치사항을 협의하여 정박한계척수를 명시하고 유사시 피난수역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상악화에 따른 정박지 취약도를 분석하고 선박 좌초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울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정박지 사용과 선박통항에 대한 안전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울산항만공사는 해양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인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항 북방파제가 야간에 시인성 부족으로 선박통항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야간인식등을 설치하고 미점등 조명시설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곡각지점에 LED 야간인식등을 설치하고 관제 음영구역 해소를 위한 선박 관제 CCTV를 확충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전용부두가 없는 선박블록 운송 바지선이 작업이 없을 때 정박지에 정박하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부선 전용부두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통항량이 가장 복잡한 항로간선지점 인근에 예선정계지를 구축하여 비상 시 적시지원 체제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울산항 구현

안전 항만 조성 3: 재난 안전

전사적 재난관리 체계 운영

울산항만공사는 항만산업 종사 근로자와 울산시민의 건강과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점 관리하는 재난은 태풍, 지진(지진해일)과 같은 자연재난과 해양 선박사고,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방사선 누출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이며, 재난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를 위해 각 재난에 대한 긴급사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이해관계자 그룹인 해양안전실천본부, 울산항 안전관리자협의회, 항만안전보건협의회 및 울산항만공사가 주도하여 구성한 울산항 해양안전벨트 소속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이해관계자 협업체계

해양안전, 재난
• 울산항 해양안전벨트 • 해양안전실천본부
육상안전
• 울산항 안전관리자 협의회 • 항만안전보건협의회

비전	선제적 재난 예방 및 적기 대응으로 고객 중심 항만 서비스 제공		
목표	안전이 우선시되는 항만 정책		무중단 항만운영 서비스 제공
3대 전략과제	재난관리 콘트롤타워 정립	재난관리 예방 기능 강화	재난 대응 복구 역량 강화
실행 과제	• 기관별 임무 및 역할 재정립 • 재난관리 네트워크 강화 • 표준화된 재난 대응체계 확립	• 안전관리 점검·감독 강화 • 재난예방 교육 홍보 강화 •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	• 신속한 재난 정보 수집 전파 • 예산 인력 장비 적기 대응 • 사고원인 조사, 환류체계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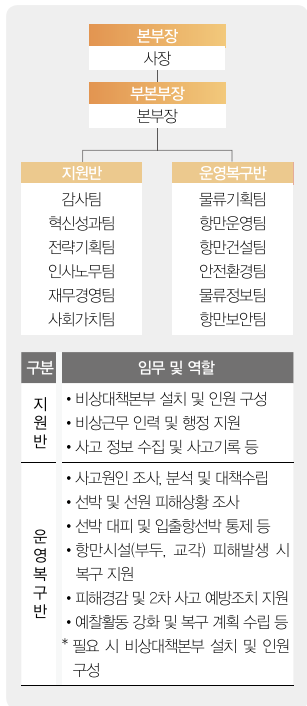
유형별 대응 매뉴얼

구분	관련상황	대응 매뉴얼
자연 재난	태풍 내습	• 태풍이 28.0N, 132.E를 통과하거나 태풍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태풍내습 대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진 (지진해일)	• 울산항 인근규모 4.0(해역 4.5) 이상 발생 • 울산 지진해일주의보(예상파고 0.5~1.0m) 지진(지진해일)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
사회 재난	선박사고 (일반선박)	• 선박이 충돌, 접촉, 좌초, 전복, 침몰, 화재 및 폭발 등으로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선박에 적재된 화물 등의 폭발, 화재 등으로 선박 등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양 선박사고(일반 선박)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해양오염사고	• 지속성기름 100kl 또는 비지속성 기름 300kl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사고 등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 인접국가에서 방사능 오염자의 입국 및 오염물품의 선박을 통한 수입가능성 발생 •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한 인접국가의 항만에 선박이 기항하는 경우 인접국가 방사능누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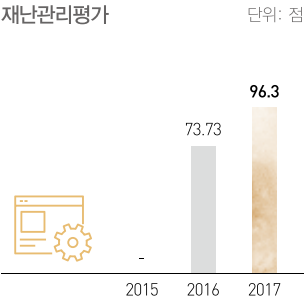
긴급사태 대응 프로세스

울산항만공사는 긴급사태 징후 포착 활동을 통해 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로 구분하여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있으며,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긴급사태로 판단되면 위기관리체계로 전환되고, 비상설기구인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거나 부서차원에서 대응을 진행합니다. 상황 개요 파악과 수집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며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위기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대응활동을 수행합니다. 또한 위기상황이 종료되면 시설물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향후 계획수립 시 반영하도록 긴급사태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긴급사태 대응 조직 및 업무



재난관리평가



재난대응 합동훈련



비상대책본부 운영

긴급사태 대응훈련·활동

대형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각종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 훈련은 실제상황을 가정한 도상훈련 및 현장훈련을 수행하며, 울산항 유관기관 및 업·단체 합동대응훈련으로 진행됩니다. 2017년에는 민·관·군 합동 정박선 주요사고 대응훈련, 해양선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점검훈련,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훈련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 및 임무부여 등 재난에 대비한 대응·수습·복구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긴급사태 정보시스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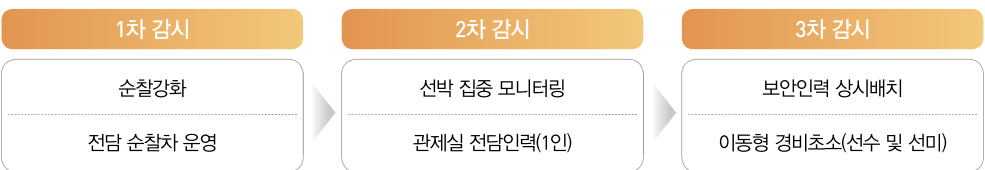
재난상황에 대비한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보고시스템 확립을 위해 울산항 통합 재난안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 재난관리시스템에서는 실시간 재난상황 안내, 부두 피해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재난 관련 매뉴얼과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등을 게시하여 즉각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좁은 수역면적과 외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해양기상 변화에 민감한 울산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상기상악화로 인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별화된 맞춤형 해양기상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항만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 항만 조성 4: 항만 보안

밀입국 방지를 위한 능동적 보안관리

전국 항만에서의 밀입국 시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입국규제선박, 북한기항선박 등 우범선박에 대한 집중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항의 경우 선박이 접안해있는 장소에서 부두출입문까지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밀입국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안체계 확립이 중요하며 이에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만 경비보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울산항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 울산항만공사는 최근 들어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 밀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관리 선박 지정 범주를 2016년 160척에서 2017년 491척으로 확대하여 보안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인력과 원격감시를 연계한 다중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무단하선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다중감시체계



자체보안심사 강화

국내·외 테러위험이 증가함과 동시에 항만보안 요구수준 향상에 따라 울산항만공사는 자체보안심사를 강화하여 보안취약점을 발굴하여 조치하였습니다. 항만출입과 관련하여 출입증 사용실태를 전수조사하였으며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항만출입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보안인프라 측면에서는 보안울타리 등의 취약점을 발굴하여 시설을 보강하였으며 외부보안심사 지적사항을 반영한 시설 및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내부보안심사 항목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항만보안사고는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0건을 기록하였으며 2017년의 외부보안심사 지적건수도 전년대비 60% 감소(2016년 15건, 2017년 6건) 되었습니다.

항만보안사고

	단위	2015	2016	2017
보안사고 발생	건	3	0	0
무단하선	건(명)	8(11)	9(24)	1(2)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발전 기여

지역사회 발전 기여

장생포 워터프론트 조성

울산항만공사가 위치한 울산시는 산업도시의 특징을 가져 지역 내 시민 휴식처 및 관광 콘텐츠가 부족합니다. 또한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울산항에 대한 지역주민의 낮은 관심도와 부정적 인식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울산항만공사의 사회적책임경영 활동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울산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을 개방하고 항만을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울산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이 휴식을 위해 즐겨찾는 울산항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울산항 남방파제 친수시설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콘텐츠의 부재, 시설의 한계로 인하여 지역 시민으로부터의 인지도가 낮고 미비한 활성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공사는 지자체 및 장생포 지역 관광특구와 연계한 콘텐츠를 통해 파급력을 높이고자 지역사회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콘텐츠 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에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 남구청과 협력하여 장생포 지역 항만시설 리모델링, 푸드트럭 및 산책로 등 친수공간 조성, 어린이 테마파크, 관광 인프라 및 콘텐츠를 확보하는 등 장생포 워터프론트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 개시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 콘텐츠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인근 식당 등 서비스 시설 고용 확대 등을 통한 간접 일자리 창출 1,400여 명, 경제적 수익성 약 682억 원(2020년) 정도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 지속가능한 고래산업 발전방안 연구(2014, 국립수산물학원 고래연구소)에서 발표한 울산광역시 관광산업 부문 유발계수를 적용하여 취업 유발효과 산정



장생포 워터프론트 조성



장생포 어린이 테마파크



장생포 모노레일



장생포 5D 입체영상관

축제와 문학이 있는 울산항 조성

울산항만공사는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인 울산 고래축제와 연계한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공사는 울산항 교육프로그램, 거리 퍼레이드 등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참여자 수는 2,148명으로 전년 대비 29.1%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학 연계형 사업으로 제5회 등대문학상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등대를 주제로 사단편소설, 수필 등 분야별 작품을 공모하였으며 총 914편의 작품이 응모되어 수상작에 대해 시화전을 개최 하였습니다.

이러한 울산항만공사의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 울산 남구청이 공로 감사패를 수여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애 향심이 증대되어 울산항만의 위상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울산 고래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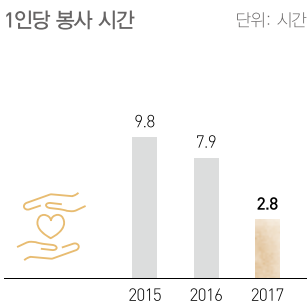
거리 퍼레이드



행사부스 : 즉석 사진인화



등대문학상 시상



사회공헌활동 만족도	단위: 점		
구분	2015	2016	2017
참여자 만족도	82.17	80.68	74.76
수혜자 만족도	94.5	미시행	98.33

사회공헌활동: 추천체계

운영 체계

울산항만공사는 사회공헌 브랜드인 '웃음가득海'를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는 기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관점에 머물렀던 사회공헌에 대하여 공유가치창출(CSV)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지역사회-문화 및 해양산업 공유가치 창출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사회공헌활동의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사회공헌 추진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추진 전략

사업목표		지역사회 문화 및 해양 산업 공유가치 창출로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방향		해양산업 육성 지원	지역사회 나눔 실현	문화·예술·스포츠 활성화	
전략과제		해양산업과 연계한 공유가치 창출	지역사회 나눔을 통한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실현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도시 구현 기여	
실행과제		• 해양분야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 해양산업 관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아이템 발굴	• 지역 소외계층 대상 지속적인 지원 활동 실시 • 지자체, 지역기업 협업을 통한 효과적인 사회공헌 사업 추진	• 지역 전통 문화 예술 분야 후원을 통한 활성화 도모 • 비인기 종목 스포츠 후원으로 균형 발전 실현	
성과 지표	계량	• (공통) 수혜자 만족도 최고수준(95점) 유지('15(94.5) → '16(미시행) → '17(98.33)) • (공통) 활동방향별 예산집행률 90% 달성('15(29.26%) → '16(68.34%) → '17(83.57%))			
	비계량	해양산업 가치 창출 및 인지도 제고	지역 소외계층 삶의 질 개선	지역문화·예술 스포츠 행사 활성화도모	
모니터링 및 피드백	계획수립		과제수행	과제점검	평가 및 결과 활용
	• 사업정의 • 성과지표·목표 설정 • 세부 실행과제 도출 • 자원 배분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실행 • 사회공헌 협의체 및 간담회 운영 참여	• 경영환경 변화 및 문제점 장애요인 점검 • 해결·극복방안 모색 • 추진성과 관리	• 내외부 평가 실시 • 지적사항 조치 • 성과 공유 및 확산 • 향후 개선과제 도출

울산항만공사는 1) 해양산업 육성·지원, 2) 지역사회 나눔 실현, 3) 문화·예술·스포츠 활성화라는 3가지 활동방향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회공헌활동 성과는 공사의 경영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사회적 가치지수(KSI)' 평가와 연계되어 있어, 전사적인 사회공헌활동의 지속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예산 편성

울산항만공사의 사회공헌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풍부한 재원을 바탕으로 사회공헌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의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매년 전년도 매출액 대비 0.5% 정도를 사회공헌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8년의 예산은 4.4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0.53%, 세전이익 대비 1.13% 수준의 사회공헌 예산액을 확보함으로써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매칭그랜트 제도

울산항만공사는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회사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제도를 통해 일부 재원을 마련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백혈병 소아암 환자의 치료비 후원, 국군장병 및 취약계층 지원, 태풍 피해 지역 지원 등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기금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매칭그랜트	만 원	2,432	1,970	2,633
사회공헌금액 및 각종 기부금	만 원	8,971	19,042	31,792
합계	만 원	11,403	21,012	34,425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발전 기여

자유학기제 전문 프로그램(2017)

구분	학교(개교)	인원(명)
UPA형	15	464
특화형	5	170
협업형	2	52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현황

구분	2015	2016	2017
운영횟수	27회	41회	68회
수혜인원	1,202명	2,069명	2,460명

사회공헌활동: 추진성과

해양산업 육성·지원

울산항만공사는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해양항만분야 집중 체험 및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여 U-Tour, 오픈포트, 희망 Job Go 등의 프로그램으로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해양항만분야의 미래인재 육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 분야의 교육기부 프로그램 수혜자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7년에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공사 자체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해양·항만스쿨형 진로체험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항만 직업인특강, 해양역사문화 체험, 해양산업 교육 및 해양레포츠 체험 등 내실있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참가 교사 및 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캠프 참가 대상을 울산지역 청소년 뿐만 아니라, 경주·양산 지역 청소년까지 확대함으로써 경상권 내 해양·항만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울산항만공사는 한국해양소년단 후원, 한국항만연수원 항만분야 인력양성 교육비 후원, UNIST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지원 등 해양항만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으며, 향후 울산지역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UPA 교육기부 활동단을 모집·운영하여, 공사의 교육기부,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해양·항만분야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해양항만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2017)

구분	단위	U-Tour	오픈포트	희망 Job Go	기타 협업	계
운영횟수	회	33	6	4	25	68
수혜인원	명	1,169	136	102	1,053	2,460

지역사회 나눔 실천

지역사회 교육 지원

2012년부터 1사 1교 협약을 맺은 장생포초등학교에 교육활동 및 체험학습을 지원해 왔습니다. 시내와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장생포초등학교 아이들이 정규 수업을 마친 후 교실에서 영어, 수학, 컴퓨터, 풍물 등을 무상으로 배울 수 있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으며, 2016년부터는 장생포초등학교에 현금으로 지급하던 방과 후 교육비를 울산대학교와 협약을 체결, 울산대 방과 후 학교사업단인 '티치포울산'의 방과후교육 서비스로 대체하는, 이른바 삼각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울산항만공사-사회적 협동조합-학교 간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 활성화와 지역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새로운 모델로 도입됨



진로체험프로그램



교육기부 인증



해양항만스쿨 캠프



장생포초 방과후학교



선암동 벽화그리기



열무물김치 나눔행사



사회적경제 업무협약



장애인체육 후원협약

윤리·청렴한 기업문화 조성

윤리경영체계

윤리경영 비전 및 전략

울산항만공사는 '투명한 윤리경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청렴한 UPA 구현'을 윤리경영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방향과 그에 따른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 이행을 통해 윤리 및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문화 확산을 공사 내부에 국한하지 않고 울산항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울산항 및 지역사회에 윤리청렴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비전	투명한 윤리경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청렴한 UPA 구현			
목표('20)	 기관청렴도 최고 등급	 윤리경영지수 A+ 등급	 투명성 자가진단 100 점	
전략	 윤리경영시스템 고도화	 윤리청렴 실천역량 강화	 반부패·윤리 환류체계 고도화	 사회적 공유가치 창출
전략 과제	① 윤리경영 추진 기반 강화 ② 반부패경영시스템 (ISO 37001) 구축 ③ 청렴 윤리 시책 추진 조직 운영 활성화 ④ 인권경영강화	① 경영진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활동 실천 ② 맞춤형 청렴 윤리교육 실시 ③ 반부패 경영투명성 강화 ④ 청렴 윤리의 날 운영 ⑤ 윤리적책임 강화	① 내부경제 활성화 ② 윤리·청렴실천 성과평가 및 환류시스템 활성화 ③ 윤리 청렴 추진홍보 강화	① 사회공헌 실천 및 협업 ②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지원 ③ 내외부 소통채널 강화

추진 조직

울산항만공사의 윤리경영 업무는 전략기획팀에서 총괄·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윤리경영 실적을 점검·환류하고, 윤리경영위원회에게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부서별 추진사항을 검토·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규범

 윤리강령 기업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	 임직원 행동강령 부패방지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	 부패신고 운영규정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내·외부 신고자의 신고 접수 및 처리방법과 신고자의 신분보장관련 사항 규정	 임원 직무청렴 계약규정 임원이 준수하여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직무청렴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인권경영 선언문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
---	--	--	--	--

윤리문화 체화 노력

윤리문화 내재화 및 확산

울산항만공사는 구성원의 윤리문화 내재화와 조직내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 업무포털 사이트 활용을 통해 임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자가학습 실시 후 문제풀이 및 성과평가 연계활동을 진행하여 자기주도형 청렴학습을 이수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 입사자에게는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및 청렴서약서 징구, 승진자 대상으로 공직자 청렴가이드 교육 시행, 임원에게는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교육 시행하는 등 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의식 제고 및 예방적 윤리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리교육 프로그램

청탁금지법 대면교육	자기주도형 청렴학습	생애주기별 부패방지교육								
울산항 클린벨트 대상 합동 교육 시행으로 청탁금지법 내면화	업무포털로 청탁금지법 자가학습 후 문제풀이 실시 및 성과평가 연계	<table><tr><th>구분</th><th>교육시행</th></tr><tr><td>신규자</td><td>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및 청렴서약서 작성</td></tr><tr><td>승진자</td><td>공직자 청렴가이드</td></tr><tr><td>임원</td><td>고위공직자 청렴 리더십 과정</td></tr></table>	구분	교육시행	신규자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및 청렴서약서 작성	승진자	공직자 청렴가이드	임원	고위공직자 청렴 리더십 과정
구분	교육시행									
신규자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및 청렴서약서 작성									
승진자	공직자 청렴가이드									
임원	고위공직자 청렴 리더십 과정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울산항 클린벨트 운영

울산항 클린벨트는 2013년 울산항만공사를 주축으로 울산항 관련 6개 공공기관(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세관, 울산해양경찰서, 해양환경공단 울산지사,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검역소)과 함께 반부패·청렴문화를 선도하고 윤리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입니다. 이후 울산항 고객과의 양방향 소통을 위해 대상범위를 민간 업·단체까지 확대하였으며, 현재 16개 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울산항 클린벨트의 기관장 협의회를 통한 'NEW 청렴결의문'을 채택하여 19개 기관장 청렴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울산항 클린벨트 대상 합동 '청탁금지법 대면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2017년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0건'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대외적으로도 인정 받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공직유관단체(V유형) 중 종합 1위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1월에는 부패방지 민간협업 유공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 수상, 12월에는 해양수산부 공직복무관리 우수기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기관의 윤리·청렴경영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크게 인정받았습니다.

윤리·청렴한 기업문화 조성

윤리경영 모니터링

울산항만공사는 매년 윤리경영지수(U-BEX) 측정을 통해 임직원 청렴·윤리 실천 및 의식수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윤리경영 개선방향 도출과 내부 환류 활동 시행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관행 및 횡포, 계약내용 이외의 무리한 과업지시 등에 대해 불시점검을 통해 윤리경영 현장실천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윤리경영 지도점검 활동을 반기별 1회 시행하여 윤리경영 실천 독려 및 개선방안 제시 등 피드백 활동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지수(U-BEX) 설문 문항(12개 영역 55개 문항)

실문영역	측정내용
경영이념 및 철학	윤리경영의 공사 경영이념 및 경영철학 정착 여부
CEO	윤리경영에 대한 공사 CEO 추진의지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이사회, 정보공개) 활동 여부
노사관계	노사협의회 개최빈도 등 활동 이력
인재채용 및 양성	(장애인, 여성 등) 차별없는 채용 및 교육 관련
측정항목	업무환경
	인사만족도 및 반부패 청렴도 수준
	윤리경영 체계화
	공사 윤리경영 체계 및 인식 수준
	공정거래
	공정계약 및 상호협력 관계 수준
	고객만족
	개인/단체에 대한 고객만족 수준
지역사회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공헌활동 여부
	지속가능경영
	사회공헌활동 및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
별도(감점)항목	금품, 향응, 행사지원 요청 등 청탁금지법에 반하여 적발된 건수

신고제도 강화

울산항만공사는 신고제도 강화를 통해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다양한 내·외부 신고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명부패신고 시스템, 공익신고 시스템, 갑질행태 신고·상담 창구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에 대한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 및 불합리한 요소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외부 신고채널 운영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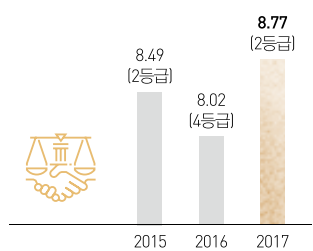
구분	주요내용	성과
익명 부패 신고 시스템 (레드휠)	• 내부청렴고충상담 활성화 계획 추진 등을 통한 신고 유도 및 소통창구 역할 수행	• '14년 운영 개시 후 처음으로 '17년 8건 – 단순불만 6건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완료
공익신고시스템	• 공익신고센터 개설 및 홍보	• 공익 신고 활성화 기반 마련
갑질행태 신고 상담창구	• ('16년) 갑질 신고 시스템 100일 운영 • ('17년)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 지정, 방문상담 메일 홈페이지 등 상시 운영	• 연령, 정보화 능력에 제약 없는 신고센터로 접근성 향상 – 갑질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대외 평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구성되며, 2016년 외부청렴도의 하락으로 종합청렴도가 4등급으로 하락했으나, 고객 접점 관리 및 부당한 관행 개선 등의 자구노력으로 2017년 2등급을 회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울산항만공사는 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까지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청렴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단위: 점



인권경영

울산항만공사는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을 통해 인권경영 추진기반 등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을 개발하여 9개 영역 38개 부분에 대한 인권경영현황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인권침해요소를 발굴하고, 예방적 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울산항만공사는 인권경영현장을 확정하고 전사를 비롯한 대외에 선포하여 인권경영 추진에 대한 공사의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울산항만공사 인권경영현장

우리는 울산항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울산항만공사 인권경영현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하나,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파트너와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사업파트너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현지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직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 가치를 중시한다.

우리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 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울산항만공사 임직원 일동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UPA

투명·공정한 기업문화 확산

투명한 지배구조
위험과 기회관리
구성원이 행복한 일터



투명한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항만위원회 구성 및 역할

울산항만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항만공사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항만위원회입니다. 항만위원회는 항만공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비상임이사 7인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시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비상임이사 전문 분야별로 경영활동에 대한 개선필요 사항에 대한 경영제언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원회의 의결 및 보고사항은 정관 제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경영목표·예산·자금계획·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결산,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항만시설의 임대료 및 사용료의 기준 설정, 정관의 변경 및 내규의 제정·변경 등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또한 전문성을 활용한 경영자문 등을 통하여 회사의 가치창조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항만위원회 운영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됩니다. 정기회는 연 4회(2월, 6월, 10월, 12월)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됩니다. 항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장이나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척규정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의결에 필요한 구성원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울산항만공사의 홈페이지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http://www.alio.go.kr)’를 통해 항만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의결 및 보고 안건의 처리 결과는 즉각 공사에 통보하여 경영활동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만위원 선임 절차 및 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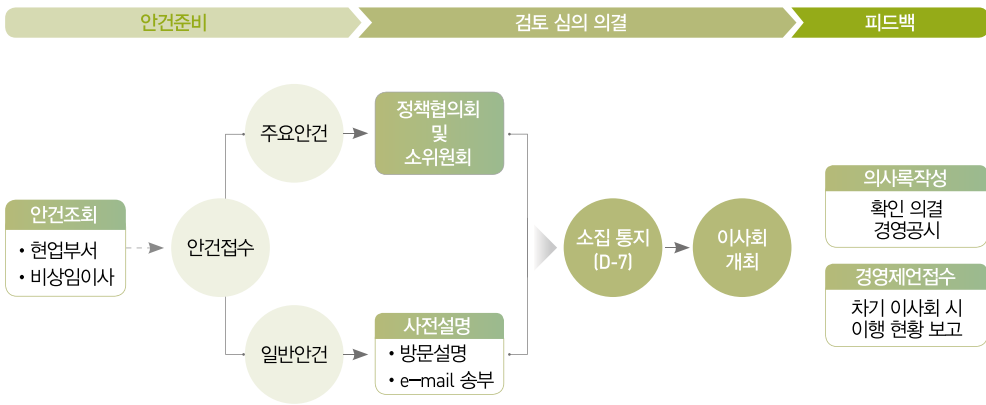
항만위원의 추천 및 선출 절차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항만공사법에 의거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만위원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해양수산부 등 후보추천기관을 다양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항만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주무부처의 직무수행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항만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1년입니다.

항만위원회 구성원		2018년 6월 말 기준
성명	주요 경력	성별
최계열 (항만위원장)	한국도선사회 울산지회장 한국도선사회 울산지회 도선사(현)	남
김수득	울산항선사협회 회장 유코카캐리어스㈜ 울산소장	남
김옥현	한국항만물류협회 부위원장 세방익스프레스(주) 부사장, 고문	남
박진희	한국해양대학교 물류시스템공학과 학과장	여
이은규	울산발전연구원 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팀장	남
정세용	울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남

* 1인 공석

항만위원회 운영 프로세스



소위원회 및 내·외부 협의회 참여

위원회 의결사항 및 공사의 발전과 관련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예산심사 소위원회, 투자심사 소위원회 등이 있으며 그 외에 항만위원들의 경영제언 활성화를 위해 각종 내외부 협의회 등에 항만위원들을 참여시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외부 협의회	내 용
혁신사례 경진대회 평가	전사 혁신사례 경진대회 평가
제안심사위원회	직원 제안에 대한 평가진행
성과관리위원회	내부성과평가편람 등 성과평가운영을 위한 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임원·항만위원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유도하고, 윤리강령 등 규정을 효율적으로 준수, 이행하기 위한 위원회
10년사 발간 편찬위원회	10년사 책자 편찬을 위한 자문 위원회

이사회 운영성과

항만위원회의 운영성과는 항만위원회 참석률, 사전안건 심의율, 경영제언 건수 등으로 평가됩니다. 항만위원회에 대한 성과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성과 제고를 돕기 위하여 공사 현안사항 보고 정례화, 경영정보 상시 제공 등으로 항만위원의 공사 현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항만위원별 본부전담제 시행·현장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항만위원의 참여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현장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만위원회 성과창출 지원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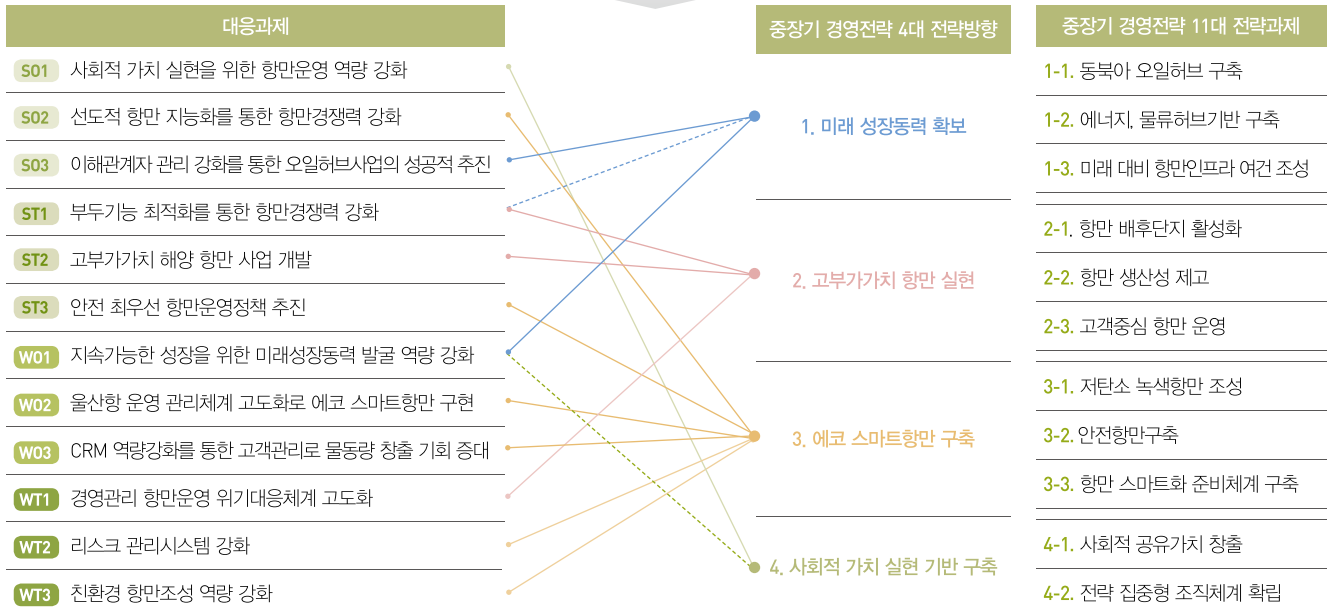
구분	추진내용
항만위원 전문성 강화	• 항만위원회 안건사업 추진현황 정기적 보고 • 주요 현안사항 보고 정례화(업무보고자료, 국정과제 및 현안과제 등) • 항만위원 안건 적기 제공을 통한 안건심의 강화율 제고 • 주요사업 현황, 주요사업 실적, 보도자료 등 경영정보 제공
현장경영 확대	• 경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설명회 개최 • 본부 전담제를 통한 자문활동 실시
경영제언 활성화	• 내부 각종 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참여 • 항만위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세미나 개최

위험과 기회관리

위험과 기회요인 인식 및 대응

울산항만공사는 경영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여건 변화와 정부 정책 방향을 적기에 분석하여 조기 대응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공사의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울산항이 에너지 허브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내·외 경영환경과 공사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 전략에 반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위기 및 기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SWOT 분석 및 전략과제 경영전략 연계



운영 리스크 관리

울산항만공사는 운영 측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들을 e-감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통한 내부감사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상시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리스크를 자동 추출한 후 소명 절차를 거쳐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프로세스별 위험 발생가능성 및 영향도에 따라 123개의 리스크를 선정하고 리스크 요인별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자가점검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방위주의 감사체계로 전환하고 주기별 점검을 통해 잔여 리스크가 감소될 수 있도록 업무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 프로세스



감사시스템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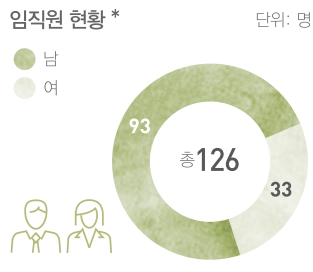
재무 리스크 관리

중장기 경영전략과 재무전략의 연계를 위해 핵심동인인 물동량, 선박입출항톤수, 생산자물가지수, 이자율, 매출액 등 변화를 반영하여 시나리오별 중장기 재정수지를 분석대응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 위험 모니터링을 통해 인식되는 위기 단계별로 전사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무위험 모니터링 단계별 대응방향

단계별	위기대응 조치사항	위기대응 조직
1~2단계 (정상 관심)	• 월1회 매출액 및 영업이익 모니터링 • 지속적 원가 관리를 통한 원가절감	• 재무경영팀장 주도로 전부서 협조 체계
3단계 (주의)	• 임원 및 전직원 '주의' 단계 진입 상황 공유 • 사업부서별 목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달성여부 점검 • 원가절감 목표 설정 및 행동 이행	• 재무경영팀장 주관 위기대응 대책 실행
4단계 (경계)	• 위험관리TFT 운영 • 사업부서별 목표 영업이익 달성여부 점검 • 원가절감 목표 강화 및 행동 이행 • 매출액 목표달성을 위한 공격적 마케팅, 인센티브 제공	• 경영본부장 주관 자금조달 및 운영 통제
5단계 (심각)	• 재무전략 회의 지속 운영 • 유관부서 리스크 관리 TFT 운영 • 핵심사업 투자 우선 순위 조정 시행 등 대응 조치	• 시장 주관 재무전략회의 상시 운영

구성원이 행복한 일터



* 2018년 7월 말 기준(정규직, 무기계약직 포함)

인사 원칙

인재상

울산항만공사는 능력주의 지향,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성, 근로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인사관리 목표를 바탕으로 직 무중심, 인간존중, 능력주의, 성과주의, 공정성의 인사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적합한 인재는 '국가와 공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 '열정과 도전으로 조직성공에 기여하는 사람', '항상 고객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울산항만 공사는 4대 인재상을 채용 및 교육훈련 목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권 및 노동 원칙

울산항만공사는 인사에 있어 성별, 연령, 출신지역, 종교, 학력, 신체장애 등에 대한 차별 없는 고용을 지향하고 있습 니다. 국가의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공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임직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채용 시스템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자의 사진, 성별, 학력, 출신지, 출신학교, 학점 등의 인적사항을 참고 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용 지원자 모집, 필기전형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 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면접전형에 참가하는 면접관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한편 면접관은 철저 하게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NCS(국가직무능력 표준)에 기반한 채용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능력중 심의 채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체계

울산항만공사는 BSC기반의 조직평가와 MB0기반의 개인평가를 연계한 통합성과관리체계를 통해 업적평가를 실시 합니다. 중장기 전략과 경영계획, 연간사업계획으로 정렬된 업무 수행체계를 통해 추진되는 업무는 전사 BSC 관점 에서 다시 부서별 BSC로 정렬 후 핵심성과지표 선정, 지표별 목표설정, 과정 모니터링, 평가, 피드백 및 보상 등의 성 과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보상은 크게 임금보상과 승진평가 반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임금보상은 공사의 연간 경영실적 평 가 결과에 따라 정부가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해 주는 경영평가 성과급과 내부 부서업적과 개인업적 평가로 결정되 는 개인성과급 차등, 개인업적과 개인역량 평가 결과로 차등한 기본연봉 인상의 보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승진평가에는 개인업적과 개인역량 평가를 반영함으로써 동기부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및 보상체계

구분	개인평가		조직평가	
	개인업적	개인역량	부서업적	공사경영실적
평가지표	MB0(개인목표) (계량/비계량)	역량모델 (비계량)	부서BSC (계량/비계량)	공사 평가지표 (계량/비계량)
평가				
평가방식	목표/실적	수준비교평가	목표/실적, 수준비교평가	목표/실적, 수준비교평가
평가자	관리자(1~2차)	관리자(1~2차)	내외부 평가단	정부경영평가단
결과의 활용	승진 기본연봉 인상 차등 개인성과급 차등	승진 기본연봉 인상 차등 —	— — 개인성과급 차등	— — 기관 성과급 차등

중장기 인재육성 로드맵

- 도입기(2017년)**
-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체계 재정립
 - 전문직위제 확대
 -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 직무재평가 및 직무평가 고도화
 - 여성관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휴직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직원 삶의 질 향상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채용관리제도 고도화
 - 신규직원 교육프로그램 재정립

도약 확대기(2018~2019년)

- 중장기 인력관리 계획 재수립
- 경력개발계획 재정립
- 교육 효과성 측정 및 평가 강화
- 마이크로 러닝 실시 등 자기주도 학습법 강화
- 국내외 선진대학 위탁교육 실시
- 여성 리더십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사내강사 전문성 제고 및 지원제도 마련
- 자성과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성숙기(2020년 이후)

- 직원 역량 재진단을 통한 역량모델링 실시
- 역량모델링에 따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가 개발
- 직무/역량 단계별 교육 체계화
- 통합적 인재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인사제도 연계 시스템 구현
- HRD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훈련 다양화
- R&D 인프라 구축 중심 교육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인재육성 강화

인재 역량 강화

인적자원개발 전략

울산항만공사는 구성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능력과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창의성과 신뢰성을 겸비 한 항만물류전문가 육성'을 인재육성 목표로 하는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 개발 전략체계

사업비전	창의성과 신뢰성을 겸비한 직무전문가 육성			
HRD 중장기 로드맵	체계 정립	직무중심교육	전문가 육성	
	• 직무/역량 기반 교육 체계 수립 • 주요 직무영역별 우선순위 선정 및 교육체계 구성 • 전사 업무편람 작성	• 직급별 직무교육(필수/공통) 교육훈련 체계 정립 • 개인별 직무기술서 표준화 • 전사 업무매뉴얼 고도화 • CDP 및 IDP 구축	• 직무/역량 단계별 교육체계 구성 및 실행 • 직무전문가 양성 및 내부 감사 육성 • 인사제도 연계 시스템 구현	
전략과제	UPA 핵심가치 공유	분야별 직무전문가 육성	미래대비 기초역량 강화	
성과목표	창의적 인재육성과 능동적 조직문화 구축	HRD 전략체계 재정립 (HRD~HRM 연계)	조직성과 창출에 필요한 전사 공통역량 증진	
역량모델	계층(리더십) 역량	직무역량	공통역량	글로벌역량
실행과제	• 고급관리자 과정 • 중간관리자 과정 • 미래관리자 과정 • 공공기관 관리자 과정 • 4개 PA 공동 리더십 과정 • 여성관리자 특화 과정	• 직급별 필수교육 설계, 운영 • 직무기술서 표준화 • 전사 업무매뉴얼 고도화 • 경력개발경로(CDP/IDP)에 따른 개인별 교육체계 재정립	• UPA 수요 아카데미 활성화 • 해운/물류 컨퍼런스 과정 운영 및 현장교육 확대 •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외국어 교육 강화 등) • 자기주도 학습강화	
성과지표	계량 교육훈련 만족도(83점), 1인당 교육훈련시간(100시간)		비계량 직무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확보	
모니터링	• 교육반응도 및 학습성취도 평가		• 역량평가	• 헌업적응도 평가

미래 관리자 및 리더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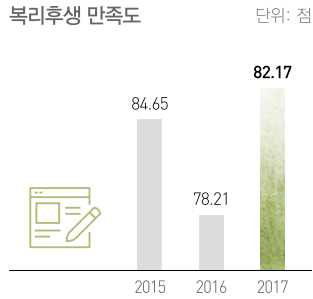
울산항만공사는 정책변화 대응, 환경변화 주도, 미래사업 추진 등을 위한 항만전문가 육성을 위해 CDP(경력개발프 로그램)기반의 미래 리더양성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공사는 구축된 체계를 바탕으로 성장경로별로 요구되는 역할 및 역량을 정의하고, 직급 단계별로 요구되는 리더십 역량 및 직무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계층별 리더십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경력개발체계 구축을 통해 상위직급 리더 뿐만 아니라 미래 관리자가 될 중간직급 리더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실행해 나가고 있으며, 공공기관 관리자 과정 등을 통해 타 기관 리더들과 학습 네트워크 형성을 제공하여 리더로서의 역량개발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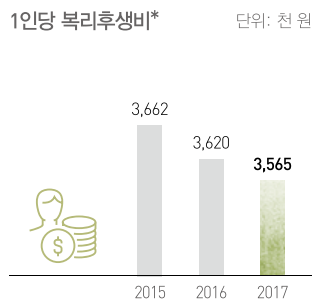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

울산항만공사의 교육훈련은 인재육성 방향에 따라 교육훈련 주관부서가 주도적으로 계획하는 리더십과정, 공통역량 과정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부서 및 개인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되고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적자원 수준 에 따라 실행되는 기술역량 강화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이에 따라 계층 리더십 개발을 위한 계층별 리더십 훈련과정 운영, 직무역량 고도화를 위한 직무기술서 표준화, 전사 업무 매뉴얼 고도화, CDP, IDP 체계 구축, 해운 물류 관련 현 장 교육의 확대,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행복한 일터



* 정규직무기 계약직 평균



* 정규직무기 계약직 평균

육아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사용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육아휴직	4	6	6	
남성육아휴직	1	2	2	
근로시간 단축	0	0	2	

* 출산휴가로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불가 인원 제외

일과 삶의 균형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

울산항만공사는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제적, 정신적, 환경적 측면을 아우르는 3차원 복지 모델에 따라 교육지원, 주택지원, 건강관리, 자육복지, 가족친화 지원 등의 복리후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과도한 복지제도 개선 정책기조에 순응하여 금전적 복리후생을 축소하고 비금전적 복지 혜택을 확대하며 중복 지원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프로그램

구분	지원항목	주요내용
예산 지원	급여성 복리후생비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고교재학 직원 자녀 납입금 무상 지원
		맞춤형 복지비 건강 여가생활 지원 복지비 지급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건강검진비 지원 매년 정기적인 종합검진 실시
		사내 동호회 지원 8개 사내동호회 운영비 일부 지원
직원 필요 자금 대여	대학 학자금 대부	대학 재학 직원자녀 납입금 무상 대부
	주택자금 대부	장기 저리로 주택자금 대부(구입, 전세)
사내근로복지기금	영유아 보육비 지원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
	상조서비스 지원	직원 및 가족 사망시 상조서비스 지원
	기념일 기념품 지급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기념품 지급
	휴양시설 지원	콘도 이용권 확보를 통한 시설 이용 지원

행복한 일터 조성을 통한 직원만족도 제고

직원들의 조직 몰입도 향상과 건전한 조직문화 육성을 통해 계속 근무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의 사내 동호회는 전 직원 평균 1.5개의 가입률을 보여 일과 후 직원 상호간의 교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2017년부터는 동호회 활동을 평가하여 우수한 동호회는 활동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사내 문화센터를 개설하여 일과 후 재테크 교실, 바리스타 클래스 등의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문화를 확대하고 직원들의 인문지식 증대를 꾀하기 위해 '서평 릴레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서평 작성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합니다. 일과 후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에게는 매월 소정의 어학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전문 사외 상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활성화

매주 수요일은 가족과 함께하는 '사랑한 day' 날로 지정하여 정시 퇴근을 독려하였습니다. 임신기 직원은 산전 휴가 후 육아휴직을 바로 연계할 수 있도록 자동 육아 휴직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남성직원에게도 육아휴직기간을 여성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육아기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유연근무제 사용을 활성화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복리후생제도 시행

울산항만공사는 계약직 직원들의 고용 안정뿐 아니라 처우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택자금 대부, 학자금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동일 적용 등 모든 복리후생 제도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한하여 맞춤형 복지비 제공 포인트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차감제공하고 있습니다.

화합의 노사문화

노사관계 전략

울산항만공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조성하여 성과창출에 앞장서고, 정부정책의 적극 이행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전략체계

노사관계 목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창조적 노사문화 구축			
전략 과제	법과 원칙에 따른 근로조건 실현	노사협력을 통한 성과창출	의사소통 활성화로 선제적 갈등 해결	노무역량 향상으로 선진 노사관계 구축
실행 과제	• 정책을 반영한 합리적 단체협약 체결 및 취업규칙 개선 • 불합리한 차별해소 등 사회적 책임 실현	• 상호존중과 배려하는 조직문화 정착 • 노사협력을 통한 대내외 성과 창출	• 소통시스템 활성화 및 내실화 • 고충처리 효과성 증대	• 노무관리 역량강화 시스템 활성화 • 노무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내외 전문가 활용

노동조합 활동

울산항만공사 노동조합은 2017년 말 기준 가입대상 직원 75명 중 73명이 가입하여 가입률이 97.3%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사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원은 1급 직원 및 부서장, 인사노무감사비상계획 담당 및 3급 이상의 정보전산급여 담당직원, 비서전용 운전원, 기간제 직원 및 수습직원 등이며, 청원경찰도 조합 가입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쟁의가 발생하거나 유사시에 항만 보안 관리에 영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공사는 중요한 사업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통보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노사가 사전에 협의 및 합의하여 쟁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노사 커뮤니케이션

노사간의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통해 전사적 화합과 협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활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노사공동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사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업무관리를 위한 소통, 노사간 소통, 지식공유를 위한 소통, 조직활성화를 위한 소통, 고충처리를 위한 소통 등 목적에 따른 소통 채널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정보공유, 현안 해결, 공감대 형성 및 계층간 화합을 이루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공동기구 운영

	노사협의회	보수 및 복리후생 개선위원회	단체교섭 회의
목적	공사 발전과 근로조건 증진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개선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운영	분기별 정기회(법적 기준) 준수 및 필요시 임시회 개최	성과연봉제 폐지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실무반 회의 수시 개최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 분리 실무교섭 위주, 본교섭 최소화
비고	• 비노조위원 청원경찰 대표(1명)의 근로자위원 포함으로 해당 직군의 애로 청취 및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	• 보수 및 복리후생 분야에 집중한 노사협의기구 - 직원 보상과 관련한 제도 변경 사항 협의 및 결정	•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단체협약 체결 • 임금협약을 통한 직급별 임금 인상항목 및 인상을 결정

노사 커뮤니케이션 채널

업무관리를 위한 소통	
목적	업무 점검 관리 및 협업역량 제고
채널	경영실적보고회 등 총 3개
노사 간 소통	
목적	노사 간 교섭 및 협의를 통한 공사 정책 결정
채널	노사협의회 등 총 6개
지식공유를 위한 소통	
목적	지식·정보 공유를 통한 집단지성 활성화
채널	학습동아리 등 총 4개
조직 활성화를 위한 소통	
목적	개인 혹은 집단 간의 친밀감·유대감 증진
채널	동호회 등 총 5개
고충처리를 위한 소통	
목적	개인과 집단 차원의 고충 해결
채널	고충처리위원회 등 총 6개

APPENDIX

사회책임경영 성과

UN SDGs / UNGC 이행 현황

GRI Standards Index

ISO 26000 이행수준 진단보고서

제3자 검증의견서

대외수상 및 인증현황

사회책임경영 성과

경제 성과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주요 경제 성과(K-IFRS)					
	매출액	백만 원	74,405	77,748	82,812
	영업이익	백만 원	32,057	35,144	31,136
	당기순이익	백만 원	30,211	27,212	30,266
요약 재무상태표(K-IFRS)					
자산	유동자산	백만 원	60,420	48,247	59,954
	비유동자산	백만 원	682,841	734,415	737,487
	자산총계	백만 원	743,261	782,662	797,441
부채	유동부채	백만 원	29,388	22,819	17,530
	비유동부채	백만 원	105,384	135,106	134,336
	부채총계	백만 원	134,772	157,925	151,866
자본	자본금	백만 원	440,488	440,488	440,488
	기타	백만 원	168,001	184,249	205,087
	비지배지분	백만 원	0	0	0
	자본총계	백만 원	608,489	624,737	645,575
부채 비율		%	22.15	25.28	23.52
경제 가치 분배					
이해관계자	산정 기준				
정부/지자체	법인세	백만 원	9,127	8,584	8,644
임직원	급여, 제수당, 복리후생비, 성과급, 퇴직급여 등	백만 원	8,616	9,870	8,614
주주	배당금	백만 원	10,779	9,388	11,529
지역사회	기부금 (공사 출연금 및 임직원 기부금 등)	백만 원	119	187	398

환경 성과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에너지 사용량	직접 에너지 사용량 (사육, 전기에너지지만 고려)	TJ	9.7	10.44	10.63
	간접 에너지 사용량	TJ	28.7	32.2	32.6
	계	TJ	38.4	42.64	43.23
온실가스 배출량	직접 (scope 1) (사육, 전기에너지지만 고려)	tCO2eq	471.10	507.04	516.27
	간접 (scope 2)	tCO2eq	1393.88	1563.86	1583.29
	계	tCO2eq	1864.98	2070.9	2099.56
환경영향관리	미세먼지(PM10)	μg/m³	46.83	43.33	44.75
	상수도 사용량	ton	5,594	4,354	4,472
	사업장폐기물(일반) 처리량	ton	0	0	0
	건설폐기물 처리량	ton	5,293.72	828.72	4,064.28
	녹색제품 구매 금액	백만 원	703	2312	626
녹색제품구매	녹색제품 구매율	%	97	99.8	98.8

사회책임경영 성과

사회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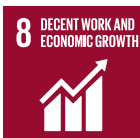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임직원					
고용	총 임직원 수	명	122	124	126
	– 정규직	명	122	124	126
	일반직/기술직	명	80	87	93
	청원경찰	명	31	29	25
	무기 계약직	명	11	8	8
	– 비정규직	명	0	0	0
	기간제 계약직	명	0	0	0
	장애인	명	3	3	4
	국가보훈자	명	7	7	5
	일반직 (임원, 청원경찰 포함)	명	15	8	8
	무기계약직	명	1	0	0
	임원	명	3	3	2
	1~3급	명	22	25	27
	4급	명	14	13	13
	5급	명	10	12	17
	6급 이하	명	31	34	34
	무기 계약직	명	11	8	8
	청원경찰	명	31	29	25
	19~29세	명	24	27	23
	30~39세	명	43	43	50
	40~49세	명	29	30	29
	50세이상	명	26	24	24
평균 근속연수		년	5.7	6.1	6.7
퇴직	퇴직자수*	명	8	5	6
여성인력	여성 직원 수(비율)	명(%)	24(19.7)	29(23.4)	34(27.0)
	여성관리자 수(비율)	명(%)	1(4)	1(3.5)	1(3.4)
	여성 신규채용(비율)	명(%)	2(12.5)	6(75)	6(75)
육아휴직	육아휴직 사용자	명	3.5	5.5	6
	육아휴직 복직율	%	100	100	100
교육	교육예산	백만 원	274	270	274
	1인당 교육비	천 원	3,248	2,351	2,833
	1인당 교육시간	시간	93.0	97.4	101.7
보건	산업재해율	%	0	0	0
고객					
고객만족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점(등급)	91.4	90.1	89.0
정보보안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건	0	0	0
지역사회					
기금조성	사회공헌 예산집행액	백만 원	90	190	318
	매칭 그랜트	백만 원	24	20	26
봉사시간	1인당 봉사시간	시간	9.8	7.9	2.8
안전					
항만건설	건설사업 재해율	점(등급)	0	0	0
항만안전	육상안전사고 발생건수	건	12	10	13
	해상안전사고 발생건수	건	20	9	15

* 퇴직자 수 산정기준 : 정년퇴직 등 모든 퇴직 사유 포함

UN SDGs / UNGC 이행 현황

UN SDGs 지지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공동 목표로 전 세계의 인류 보편적 문제, 지구 환경문제, 경제 사회문제를 주제로 17가지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UN SDGs를 적극 지지하며, 공사의 지속가능경영활동 전반에 반영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해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그 활동과 성과는 이해관계자 여러분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Goal 1 빈곤종식	Goal 2 기아종식,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강화		Goal 10 국내외 불평등 해소		
Goal 3 보건 증진	Goal 3 보건 증진		Goal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Goal 4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Goal 4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Goal 12 소비와 생산 증진		
Goal 5 성평등 및 여성, 여아 역량강화	Goal 5 성평등 및 여성, 여아 역량강화		Goal 13 기후변화 대응		
Goal 6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과 관리강화	Goal 6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과 관리강화		Goal 14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Goal 7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성 강화	Goal 7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성 강화		Goal 15 육상 생태계 보존 및 사막화 방지, 생물다양성 감소 방지		
Goal 8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	Goal 8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		Goal 16 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사법 접근성 확보, 제도 구축		
Goal 9 복원 가능한 인프라 건설과 산업화 촉진	Goal 9 복원 가능한 인프라 건설과 산업화 촉진		Goal 17 이행 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UNGC 가입 및 지지

울산항만공사는 유엔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에 2013년 가입하였으며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4대 항목 10대 원칙을 지지하고 이행준수를 약속하였습니다.

원칙		
	인권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의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고,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 6 고용과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GRI Standards Index

Universal Standards

주제	공개명	페이지/비고
조직 프로필	102-1	조직명
	102-2	활동 및 주력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102-3	본사 위치
	102-4	사업장 위치
	102-5	조직 소유 및 법적 형태
	102-6	시장 영역
	102-7	조직 규모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102-9	조직 공급망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요한 변화
	102-11	사전예방 접근법이나 원칙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101-13	가입협회
전략	102-14	최고의사결정권자 성명
윤리 및 청렴성	102-16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및 행동규범
거버넌스	102-18	거버넌스 구조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102-41	단체협약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토픽 및 관심사
보고관행	102-45	조직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주제 목록
	102-46	보고내용 및 주제경계 정의
	102-47	중대 주제 목록 (List of material topics)
	102-48	정보의 재기술
	102-49	중대 주제 및 주제범위에 대한 변화
	102-50	보고 기간
	102-51	가장 최근 보고서 발간일자
	102-52	보고 주기
	102-53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102-54	GRI Standards에 따른 보고 방식
	102-55	GRI Content Index
	102-56	외부 검증

주제	공개명		페이지/비고
Topic-specific Standards: Economic Performance			
경제성과	103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24-25
	201-1	직접적인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14
간접경제 영향	203-1	인프라 투자 및 지원되는 서비스	28-35
	203-2	중대한 간접경제영향	28-35
반부패	103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24-25
	205-1	사업장의 부패 위험 평가	60-62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61-62
Topic-specific Standards: Environmental Performance			
에너지	103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24-25
	302-1	조직 내 에너지 소비	75
용수	303-1	취수원별 용수공급	75
배출	103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24-25
	305-1	직접배출 (Scope 1)	75
	305-2	간접배출 (Scope 2)	75
	305-7	NOx, SOx 및 기타 주요 대기배출물질	75
Topic-specific Standards: Social Performance			
고용	401-1	신규 채용 및 이직자 수 및 비율	46
	401-3	육아휴직	72, 76
노사관계	103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24-25
	402-1	경영상 변동에 관한 최소 통지기간	73
산업안전 보건	103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24-25
	403-2	부상 유형, 부상 발생률, 업무상 질병 발생률, 휴직일수 비율, 결근율, 업무 관련 사망자 수	76
훈련 및 교육	103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24-25
	404-1	한 해 동안 근로자 1인이 받는 평균 훈련시간	76
	404-2	근로자의 역량 강화 및 경력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71
다양성과 기회균등	405-1	거버넌스 조직 및 임직원 내 다양성	66, 76
인권평가	412-2	인권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임직원 교육	63
지역사회	413-1	지역사회 참여활동, 영향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장	56-59
고객안전 보건	103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24-25
	416-1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안전보건영향평가	51-55
	416-2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영향 관련 법규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	52-53
마케팅 및 라벨링	417-1	제품 및 서비스 정보 및 라벨링 관련 법률 및 절차	38-39
고객개인 정보보호	103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24-25
	418-1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에 대한 불만 건수	40-41

ISO 26000 이행수준 진단보고서



▶진단 표준

한국표준협회는 국가기술표준원 영역의 일환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에 의거하여 사회적 책임 이행수준 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본 진단 보고서는 한국표준협회의 진단 체크리스트에 따라 울산항만공사의 지속가능경영 프로세스와 7대 핵심주제 별 성과를 진단한 결과입니다.

▶진단 범위

한국표준협회는 울산항만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이행성과 등을 진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울산항만공사의 중장기 전략 및 수행활동, 이해관계자 참여, 사회적 책임 활동 등을 진단하였습니다.

▶진단 방법

한국표준협회는 ISO 26000 이행수준 진단기준에 의거하여 적합한 관련 근거수집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 울산항만공사의 중장기 전략 및 경영실적보고서 검토
- 울산항만공사의 지속가능경영 영역별 담당자 인터뷰 및 성과 문서 검토
- 울산항만공사 및 공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주고,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이슈 파악

▶ISO 26000 사회적 책임 프로세스별 진단 결과

울산항만공사는 2012년부터 사회적책임경영성과를 보고하기 시작하여 올해 4번째 사회적책임경영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대 항만공사 중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사회적책임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며, 2014년 UNGC가입을 통해 대외적으로 사회적책임 10대 원칙 준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2018년 전사 경영전략 롤링을 통해 사회적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전선포식을 통하여 사회적가치 실천에 대한 CEO의 의지를 표명한 것은 높이 평가될 만합니다. 하지만 울산항만공사가 사회적책임경영 도입 후 꾸준히 보고서 발간한 것에 비하여 지난 2년 간 사회적책임경영 프로세스상의 큰 개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적책임 인식'과 '우선순위 설정 및 실행전략 계획 수립' 부분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책임경영이 조직 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영상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로 판단됩니다. 조직 내 사회적책임경영 이행을 위한 근본적인 동력을 찾아내고 전사적으로 인식전환 활동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책임인식	경영자의 의지를 바탕으로 조직의 현 상황을 검토
이해관계자 식별과 참여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검토, 참여전략을 수립
핵심주제와 쟁점분석	쟁점 검토와 조직 내부역량 분석을 통해 쟁점목록 작성
우선순위 설정 및 실행전략, 계획수립	조직역량을 고려해 개선 관리해야 할 쟁점의 우선순위,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
실행	전략과 비전, 목표와 실행계획을 이행하고 사회적 책임 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의사소통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검증	성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과 보고
개선	성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 개선으로 연결

▶ISO 26000 7대 핵심 주제별 진단 결과

조직 거버넌스 | 정부의 정책 기준에 맞는 이사회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전사 전략체계에 사회적책임 원칙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내에서 윤리, 환경, 안전, 사회공헌, 사회적 가치 등 사회적 책임 이슈가 논의되고 의사결정 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경영전략 롤링을 통해 경영목표에 사회적가치지수를 포함시켜 사회적가치성과 향상과 평가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추후 조직이 정한 사회적가치 목표가 적극적 개선을 위해 실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전직원의 참여를 독려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인권 | 울산항만공사는 2017년 인권구제를 위한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인권경영헌장 제정 및 선포,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도입하였으며, 인권경영 자가진단 및 인권보호 담당관 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권경영관련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한 성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울산항만공사의 잠재 인권취약계층이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 내 건설현장 노동자, 업무직 직원, 사내 여직원 등의 인권 리스크를 파악해 보기를 권고합니다. 울산항만공사의 인권실사에서 나아가 1차/2차 협력사까지 인권보호 정책을 시행은 물론이고 인권위협평가를 진행하여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 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노동관행 | 공사는 통합적 수준의 안전보건경영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역현장, 해상, 항만 이용자들을 위한 각각의 안전정책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정 5S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급망 내 안전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후 통합적 관점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AS18001)이 구축되기를 제안합니다. 최근 새 정부의 비정규직 감소 정책에 맞춰 울산항만공사 내부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회사 전환을 이용한 정규직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좀더 포괄적인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환경 | 울산항만공사는 에너지관리경영시스템 구축 후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및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항만의 리스크 평가 및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항의 중장기 기후변화 적응목표를 설정하여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가치사슬 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많은 환경영향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재도입을 통해 전과정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 리스크를 식별하고 환경영향 저감 및 관련 성과 보고에 힘을 쓸 것을 권고드립니다.

공정운영관행 | 울산항만공사는 윤리헌장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전직원은 매년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청렴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공익신고' 규정에 따라서 신고자의 정보와 신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직 내의 사회적책임 리스크보다 조직외부에 관련 리스크가 높습니다. 특히 보안업체, 유지보수업체, 건설업체 등의 경우 사회적책임경영 이행수준을 높여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지속적으로 가치사슬(VALUE CHAIN)상에서 사회적책임 추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행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소비자 이슈 | 경영공시 등 고시정보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두에 노후화된 인명 구조함 개선, 부두 안 차량의 속도 제한 속도 30km 안내문 설치, 휴게소, 선원복지센터 설립하였으며, 선박화재, 충돌, 오염 등 6개 안전 매뉴얼을 정비하여 부두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ESI 선박지수를 도입하여 친환경선박에 대한 혜택을 마련하여 고객의 지속가능소비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추후 고객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및 지원활동과 더불어 ESI선박 혜택 확대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친환경항만을 건설해 가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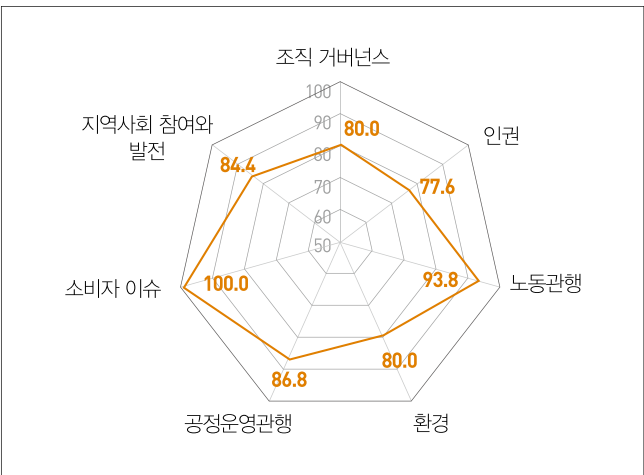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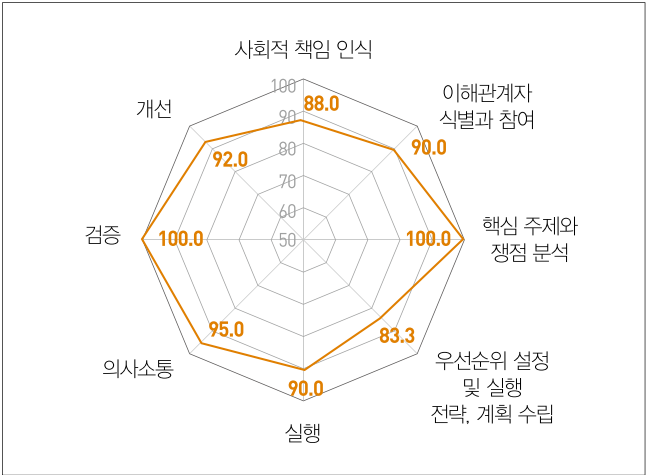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 울산항만공사는 울산지역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 울산항만시설의 개선을 통해 울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 남구청과 협력하여 장생포지역 항만시설 리모델링, 푸드트럭 및 산책로 등 친수공간 조성, 어린이 테마파크, 관광 인프라 및 콘텐츠를 확보하는 등 장생포 워터프론트를 조성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 개시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 콘텐츠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생포 초등학교와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상생협의회 연계 지역아동센터 체험학습 진행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성 사회공헌, 단순 기부형 사회공헌에서 한단계 나아가 사회공헌활동은 울산항만공사와 지역사회가 공유된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직 거버넌스	사회적 책임 원칙을 존중하고 이를 기존의 시스템, 정책과 관행에 통합하는 활동
인권	조직 내와 조직의 영향권 내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준수하며 실현하는 활동
노동관행	조직 내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노동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관행
환경	환경에 미치는 조직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조직의 결정과 활동의 의미를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활동
공정운영관행	조직과 파트너, 공급자 등 조직과 타조직간 거래의 윤리적 행동에 관심을 두는 활동
소비자이슈	소비자교육, 공정하고 투명한 마케팅정보와 계약, 지속가능소비 촉진 등 소비자 권리 보호 활동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지역사회의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그 지원과 기회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활동
개선	성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 개선으로 연결

▶진단 결론

울산항만공사의 ISO 26000 이행 수준 진단 결과, 프로세스 측면은 360점 만점에 328점, 성과 측면은 640점 만점에 554점으로 평가되어 총점 882점으로 SR IV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본 단계는 사회적책임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이 존재하며 조직의 운영시스템과 정책과 관행이 정비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치사슬 내의 지속가능경영 선도조직으로 조직의 영향권내에서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강화를 통한 지속적 유지관리가 필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현 수준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제언을 하자면 울산항만공사는 프로세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과에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프로세스 측면에서 울산항만공사에서 집중해야 할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선정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인권 분야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2018년 8월

한국표준협회 회장 이 상 진

이 상 진



한국표준협회는 1962년 한국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산업표준화, 품질경영, 지속가능경영, KS·ISO 인증 등을 기업에 보급·확산하고 있는 지식서비스 기관입니다. 특히 ISO 26000 국내 간사기관, GRI 지정 교육기관, AA1000 검증기관, 대한민국지속가능성지수(KS) 운영기관, UN CDM 운영기구,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검증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제3자 검증의견서

울산항만공사 경영진 및 이해관계자 귀중

▶ 서문

한국표준협회(이하 '검증인')는 울산항만공사로부터 '2018 울산항만공사 사회책임경영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검증인은 울산항만공사가 작성한 보고서에 포함된 데이터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독립적인 검증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본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주장과 성과에 대한 책임은 울산항만공사에 있습니다.

▶ 독립성

검증인은 독립된 검증기관으로서 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제공하는 업무 이외에 울산항만공사 사업활동 전반에 걸쳐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고 있지 않으며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검증표준 및 수준

검증인은 AA1000AS(2008)의 검증 기준에 따라 포괄성, 중요성 및 대응성 원칙의 준수여부 및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신뢰도를 '일반 수준(moderate)'으로 검증하였으며, GRI Standards에 의거하여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 검증유형 및 범위

검증인은 AA1000 검증표준(AA1000AS)에 따라 유형2(Type 2)에 해당하는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울산항만공사의 주장과 보고서에 담긴 성과정보의 정확성을 평가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검증범위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보고기간 동안 울산항만공사의 지속가능경영정책과 목표, 사업, 기준, 성과 등 시스템과 활동을 중점으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사회 데이터와 광의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재무 데이터를 검증하였으며, 이해관계자 참여에 관한 검증은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로 제한되었습니다.

▶ 검증방법

검증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범위와 관련한 정보, 자료 및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 울산항만공사 지속가능경영 담당자와의 서면 질의
- 울산항만공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초안 데이터 분석·검증
- 재무 실적 데이터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공시자료의 일치 여부 검토
- 내부문서 및 기초자료의 추적 검토

▶ 검증결과 및 의견[검증 원칙/프로세스 차원]

검증인은 보고서 초안에 수록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고서의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 중 중대한 오류나 부적절하게 기술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검증인은 '2018 울산항만공사 사회책임경영보고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 포괄성

울산항만공사가 지속가능성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포함시켰는가?

울산항만공사는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함에 있어 핵심 이해관계자 참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참여 프로세스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내부구성원(노동조합, 임직원), 유관기관(학계·전문가, 정부·국회, 항만위원회), 고객(부두운영사·하역사·항운노조·협력업체, 선사·화주·중개인, 선사대리점), 국민(국민·지역사회, 언론)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를 분류하고, 이해관계자 그룹별 커뮤니케이션 소통채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요성

이해관계자의 현명한 판단을 위한 중요 정보를 보고서에 포함시켰는가?

울산항만공사는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제외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GRI Standard의 지속가능성 주제, ISO26000, 미디어분석, 벤치마킹 등을 거쳐 31개의 관련이슈를 도출하였으며, 비즈니스 임팩트와 이해관계자 평가 및 의견을 기준으로 중요성 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순위 중대 이슈 15개를 도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대응성

울산항만공사가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관심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울산항만공사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기대사항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이해관계자 이슈에 대한 울산항만공사의 대응활동이 부적절히 보고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GRI Standards 적용수준 검토

검증인은 본 보고서가 GRI Standards의 Core Option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울산항만공사가 제공한 자료에 기반하여 다음의 공통표준(Universal Standards) 및 특정주제 표준(Topic-specific Standards) 지표에 관련된 내용이 제시된 자료에 기반하여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공통표준(Universal Standards)

검증인은 보고서가 Core Option의 공통표준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아래의 지표를 검증하였습니다.

102-1 to 102-13(조직 프로필), 102-14(전략), 102-16(윤리 및 청렴성), 102-18(지배구조), 102-40 to 102-44(이해관계자 참여), 102-45 to 102-56(보고관행), 103(경영접근방식)

▶ 특정주제 표준(Topic-specific Standards)

검증인은 보고항목 결정 프로세스를 통해 도출된 중요 주제(Material Topic)에 대한 세부공개 항목을 확인하였으며, 아래의 공개항목(Disclosure)을 검증하였습니다.

- 경제: 201-1, 203-1~2, 205-1~2
- 환경: 305-2, 305-7
- 사회: 401-1, 3, 402-1, 403-2, 404-1~2, 405-1, 412-2, 413-1, 416-1~2, 417-1, 418-1

▶ 개선 권고사항[실행 성과/이슈 차원]

검증인은 울산항만공사가 전체 조직 차원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및 지속적인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권고드립니다.

• 경제성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경쟁력 있는 에코 스마트 항만으로 성장하고 있는 울산항만공사는 창의성, 전문성 및 신뢰성을 경영의 핵심가치로 하며, 울산항을 국제적인 해운,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운업 구조조정과 세계 해운업의 공급 과잉 및 국제 무역정책 변화 등과 같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환경 속에서 울산항만공사의 비전 및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추어 해운항만산업과 지능정보기술 융합을 통한 혁신을 이루고, 재무적 및 비재무적 위험의 지속적인 관리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사전적 대응을 강화하며, 혁신활동을 통하여 종합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갈 것을 권고드립니다.

• 환경분야

울산항만공사는 최근 이슈로 부상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경영 목표 및 전략 그리고 실행과제 수립을 통해 이행 체계를 갖추었으며, 현장에서는 과제 이행을 통해 모니터링 및 저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검증팀은 문서 및 증빙 검토를 통해 녹색 항만 정책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선도적인 노력은 공공기관으로서 귀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온실가스 저감 목표의 경우 이행계획과 일련의 활동들로 인한 성과(outcome)가 서술되어야 하지만, 경영목표와 전략 그리고 성과가 일목요연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인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

로서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제에 따른 측정 및 성과 보고를 강화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사회분야

울산항만공사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쟁력 있는 에코 스마트 항만'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고부가가치 항만 실현, 사회적 책임 이행, 투명·공정한 기업문화 확산 등 산업 전반의 발전과 더불어 공사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17년 새롭게 재정립된 중장기 경영전략에 따른 4대 전략방향과 11대 전략과제의 체계적인 성과 관리는 울산항만공사의 업의 본질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의 노력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적 가치 실현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전략은 현재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보다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 모델을 구축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8년 9월
한국표준협회 회장

이 상 진



AA1000
Licensed Assurance Provider
000-70

한국표준협회는 1962년 한국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산업표준화, 품질경영, 지속가능경영, KS-ISO인증 등을 기업에 보급·확산하고 있는 지식서비스 기관입니다. 특히, ISO 26000 국내간사기관, GRI 지정 교육기관, AA1000 검증기관, 대한민국지속가능성지수(KSI) 운영기관, UN CDM운영기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대외수상 및 인증현황

2015~2018 주요 수상내역

수상내용	주관	일시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행정안전부	2018. 07월
2018 제21회 한국로지스틱스 시상식 공기업부문 대상	(사)한국로지스틱스학회	2018. 05월
2017년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정보보안) 우수기관 장관 표창	해양수산부	2017. 12월
2017년 해양수산부 공직복무관리 우수기관 장관 표창	해양수산부	2017. 12월
2017 안전문화대상 국무총리 표창	행정안전부	2017. 12월
2017 대한민국 좋은기업 향만운영 부문 1위	한국표준협회	2017. 11월
제55주년 소방의 날 기념 울산광역시장 기관 표창	울산광역시	2017. 11월
제5회 경영학자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경영대상 향만물류분야 대상	한국경영학회	2017. 05월
2015/16 비전 어워드(Vision Awards)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 금상	LACP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	2017. 02월
부패방지 민관협업 유공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	국민안전처	2016. 12월
2016년 연말 해양수산부 장관 기관 표창	해양수산부	2016. 12월
2016년도 향만운영 혁신대회 장려상	해양수산부	2016. 12월
2016 사회적 기업 어워드 공로상	사회적기업 활성화 전국네트워크	2016. 12월
제11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금상	한국기상산업진흥원	2016. 06월
2015 향만보안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해양수산부	2015. 12월
제4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해운·향만·물류 분야 대상	교육부	2015. 12월
2015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 해양수산 KSI 1위	한국표준협회	2015. 09월
2015 대한민국 혁신대상 - 경영혁신 대상	한국표준협회	2015. 06월
2013/14 비전 어워드(Vision Awards)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 금상	LACP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	2015. 02월

대외 인증내역

인증내역	주관	일시
웹접근성 품질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12월
ISO 50001	한국에너지공단 온실가스검증원	2016. 12월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교육부, 인사혁신처	2016. 09월
가족친화기업 인증	여성가족부	2015. 12월
교육기부 우수기관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2015. 09월